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사 55:7, 엡 4:31-3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PCK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수 신 노회장
참 조 사회봉사부장
발신부 사회봉사부
제 목 제110회기 총회 장애인주일 목회자료집 안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1. 오는 2026년 4월 셋째 주일(4월 19일)은 총회 제정 장애인주일(제76회 총회결의)입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존재도 구분없이 베푸신 더욱 큰 사랑을 본받아 총회장장애인주일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호적, 시혜적 차원이 아닌 장애인에게 사랑을 나누는 현장실천 중심의 사역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노회에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제110회기 총회장장애인주일목회자료"를 PDF 파일로 제공하여 드리니 예배 및 관련 교육과 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문은 노회로만 발송하니 소속교회 목회자들에게 총회장장애인주일 목회자료 내용을 총회사회봉사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료집 다운 안내

* 총회 홈페이지 (new.pck.or.kr / "사회봉사부" / "행정자료" / 241번)

* 바로연결 https://pck.or.kr/bbs/download.php?bo_table=SM02_06_11&wr_id=471&no=0&ca=%ED%96%89%EC%A0%95%EC%9E%90%EB%A3%8C

나. 종이인쇄물책자는 제작하지 않고 PDF파일로만 제공해 드립니다.

다. 문의 : 총회 도농사회처 사회봉사부 이현식 과장 02-741-4350(내선 9902)

붙임 : 제110회기 총회장장애인주일 목회자료집. 끝.

총 회 장
부 장

정 조 중



과장 이현식 실장 홍문배 총무 류성환 사무총장 최상도

시행 도농·사회처-465 (2026.3.30.)

우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6층 (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전화 02-741-4350(내선9902)

전송

/ shallom00@pcknet.org

/ www.pck.or.kr

/ 공개

제110회기

총회장애인주일 목회자료집



일 시 : 2026년 4월 19일(주일)
장 소 : 전국 교회

제110회기 총회 장애인주일 목회자료집

- 목 차 -

[예 배] 총회 장애인주일 공동예배순서		p.5
---------------------------------	--	-----

[설교문] 담임에서 열림으로, 에바다의 은혜 (마가복음 7장 31~37절)	정 종 규 목사 (총회농아인선교회 회장)	p.7
---	----------------------------------	-----

[논 문] 장애인 신학 담론의 패러다임 변화: 재활, 자활, 전환	안 교 성 목사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관장)	p.12
--	------------------------------------	------

[장애인목회 사례]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주신교회	황 성 재 목사 (주신교회 담임목사)	p.15
--	--------------------------------	------

[장애인신학 관련 서적 소개]		p.24
-------------------------	--	------

[총회 채택문서]		
1) 전국 노회원 대상 노회별 장애인식 교육 연 1회 정기 실시	제105회 총회(2020년)	p.28
2)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선언 및 목회지침서	제100회 총회(2016년)	p.29
3) 총회 장애인 헌장	제 86회 총회(2001년)	p.39

[부 록]		
- 발달장애인의 세례지침	제107회 총회(2023년) 교육훈련처세례문답집개정	p.44
-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교회활동 지침		p.50
- 장애인 관련 성경구절		p.53
- 총회 장애인관련 신하단체 소개		p.56

총회 장애인주일 공동예배

예배로 부름 인도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모든 사람은 소중하고, 장애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경배찬송 21장. 다찬양 하여라 다 함께

- 1)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 2)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네 소원 다 이루리라
- 3)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공동기도 다 함께

- 인도자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회 중 :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인도자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회 중 :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고백합니다.
인도자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회 중 : 나눔과 섬김의 삶을 보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장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고백합니다.
인도자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회 중 :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며, 이를 온전히 나눔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가게 하소서.
인도자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 중 :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죄, 외면과 무관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등함을 누리게 하소서.
인도자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회 중 :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게 하소서.
인도자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회 중 :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경봉독 인 도 자

특 송 인 도 자

*장애인부서 혹은 단체를 초청하여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설 교 본 자료집 설교문 참조 담임목사

설교후기도 담임목사

찬 송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자 다 함 께

- 1)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 2) 주 모습 내 눈에 안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 3) 가는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 4) 주 예수 세상에 다시오실 그날엔 못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

후렴)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봉헌 및 기도 말 은 이

파송의 말씀 담임목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나 시혜의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역자입니다. 따라서 교회 시설이용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배려하여, 같은 주를 섬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축 도 담임목사

[설교] 닫힘에서 열림으로, 에바다의 은혜

(마가복음 7:31~37)

정종규 목사(총회농아인선교회 회장, 화곡동농인교회)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막7:31~37)



오늘 우리는 우리 사회 속 다양한 장애인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장애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헌법 제 10조, 11조). 그러나 역사 속에서 장애인들은 차별과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 죄인, 윤락여성, 장애인들은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자리한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밖에서 사회적 소외와 고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복지 제도와 인식 변화 속에서 점차 존엄과 가치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장애인 성도들이 동등하게 존중받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장애인을 향한 올바른 관점과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농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마음이 있어도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지만, 주님께서는 “에바다, 열리라!”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과 마음, 영혼을 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열린 마음과 삶으로 서로 소통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닫힘

(막7:31~32)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을 향해 탄식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육적인 농인과 영적인 농인을 구분합니다. 육적 농인은 귀가 있어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영적 농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42:18~20)과 (사29:9~13)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책망하며, (막 4:11~12)은 사람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막7:6~8)에서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구약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공화로 인해 공황을 얻지 못한 자가 공황을 얻고, 어두움 속에 있던 자가 빛으로 불러 새 생명을 얻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호1:6, 벰전1:3, 2:9-10).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는 또한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장애인들에게도 마음과 생각을 열어 사랑과 관용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때로는 교회의 건물과 화려함, 권력과 명예, 돈에는 마음을 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에는 마음을 닫고 살아왔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고등부 1학년이던 1984년, 전국농아학생연합수련회에 참여하며 광주인화학교를 방문했을 때 그곳의 참혹한 현실은 제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농인들이 겪는 아픔과 차별이 눈앞에 펼쳐졌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교장과 직원들조차 학교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을 보며 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 소리와 말을 잃고 긴 침묵 속에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을 수어로 깨뜨리시고 농인들과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경험은 제 삶과 사명에 깊은 흔적을 남겼고, 농인들과 아픔을 나누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을 굳게 하였습니다.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큰 축복이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인들은 서로 수어로 마음을 나누지만 청인들과 소통할 때 여전히 장벽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농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농인이 되었기에 그들의 영혼에 가까이 다가가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2. 침벨음

(막7:33~34)에서 예수님께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의 양 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Ephphatha, 열리라)” - 이 말씀은 헬리어 원어 디아노이교($\delta\iota\alpha\nu\omicron\iota\gamma\omega$)에서 나왔으며 단순한 육체적 치유를 넘어 영적 회복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열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신 행동은 (요9:5~7)에서 맹인의 눈을 여신 사건과도 연결됩니다. 흠과 침벨음으로 눈을 여신 것처럼 닫힌 귀와 묶인 혀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치유가 아니라 영적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새 창조를 상징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완악함을 보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사1:2~4, 사42:18~20, 사28:23)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완악함과 불신앙을 향한 슬픔을 보여줍니다.

메시아가 받을 침벨음과 수욕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사50:6)에서는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수욕과 침 벨음을 당하였느니라”고, (사53:3~4)에서는 “그는 멸시와 버림을 받으며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었으나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마26:67, 막14:65, 15:19, 눅18:32-33)에서 얼굴에 침을 맞고 조롱과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갈3:13)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침뱀음과 손과 흙으로 맹인의 눈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닫힌 귀와 묶인 혀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탄식과 에바다(Ephphatha), 열리라<디아노이고>의 외침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율법에서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 선언입니다.

우리는 침 뱀음을 받아야 할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닫힘에서 열림으로 옮겨진 새 창조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본받아, 상한 마음과 영혼을 가진 이들에게 열린 마음과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은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혹시 이해타산을 기준으로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닫힌 의식과 좁은 관점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할 침뱀음과 수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있어 새로운 시야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목회자가 먼저 변화될 때 교회 또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장애인의 날’이나 ‘장애인 주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3. 열림과 에바다의 은혜

(막7:35~37)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귀를 열고 혀를 풀어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아노이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또한, “에바다, 열리라<디아노이고>” - 이 말씀은 단순한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죄로 닫힌 심령이 열려 복음을 깨닫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눅24:45)에서도 기록되어 있듯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디아노이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내적 기적, 곧 심령이 열리고 입이 열리는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세상의 증인이 됩니다.

또한 (사42:6~7)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닫힘과 침뱀음과 열림 - 이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열어 주시고 세상 속에 빛과 자유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저는 농인으로서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다녔습니다. 당시 저는 어휘력과 문해력이 부족하여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며 교인들이 둘러싼 가운데 저를 낚히고 양쪽 귀에 손을 대고 혀에 손을 얹으며 “귀신아, 물러가라”고 기도했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어이없는 고통이었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깊은 침묵 속에서 “왜 내가 농인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붙들고 하나님께 묻고 성경을 읽으며 깨달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설명- ‘부모님의 전생 탓’ 이라거나 ‘귀신 때문’-은 저에게 끝없는 절망으로만 안내했고 그 어디에서도 희망의 빛줄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닫힌 저의 마음과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닫힘과 침 뱀음, 그리고 열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닫힘은 율법과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탄식과 “에바다(Ephphatha, 디아노이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새 창

조를 이루신 주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열림은 복음으로 살아난 증거이며 외적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은 심령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역사 속에서 농인들의 귀와 눈을 열어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에바다의 정신은 농인들에게 복음과 교육이 함께 전해지는 통로가 되었고, 이는 미국 농학교 설립과 한국 농아선교의 효시로 이어졌음을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2011년 미국으로 유학해 수어와 영어를 공부한 뒤 리버티대학교 석사 과정을 밟고, 워싱턴 D. C.의 갈로뎃대학교에서 약 5년간 해외 농인 학생들을 섬기며 목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갈로뎃대학교의 모토인 “에바다(Ephphatha)”는 ‘열림과 소통’을 의미합니다. 1817년 토마스 홉킨스 갈로뎃 목사는 농아동과의 만남을 계기로 농인 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프랑스의 농교사 로랑 클레르크와 함께 아메리칸 농학교를 설립했습니다. 1864년에는 링컨 대통령의 승인으로 갈로뎃대학교가 설립되어 미국 전역의 농인들에게 수어를 통한 교육과 말씀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날 갈로뎃대학교는 많은 농인 학자와 지도자를 배출하며, 교수진 상당수가 농인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988년 Deaf President Now 운동으로 농인 총장의 필요성이 실현되며 전 세계 농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8년 로체스터공과대학교에 국립농인공과대학이 설립되어 농인 인재와 과학자를 양성하며 농교육의 지평을 넓혀 왔습니다. 지난 200여 년간 미국은 미국수어를 기반으로 농인 교육을 발전시켜 왔으며 에바다의 정신은 농학교와 농교육 전반에 큰 공헌을 해 왔습니다.

91년 전인 1935년에 하나님께서는 평양에서 흑암에 앉아 있던 농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평양노회 소속 이창호 목사를 사용하셔서 맹인과 농인을 위한 맹아학교를 세우게 하였고, 그때부터 맹인과 농인들이 함께 첫 주일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광복 이후인 1946년 10월 첫 주일에는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목사님의 배려로 7명의 농인들이 이북 출신 박윤삼 목사(당시 전도사)의 지도 아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때부터 91년이 지난 오늘날 전국적으로 초교파 150곳의 농인교회와 농인부가 세워졌습니다.

총회농아인선교회는 32년 전인 1994년에 설립되어 통합측 총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일은 매우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인교회들과 농인부의 선교비 지원, 그리고 이름 없는 후원자들의 헌신적인 후원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소속된 농인교회들은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노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욱이 신학교에 진학하는 목회자 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현실은 농인 목회의 미래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농인 목회자가 없는 농인교회가 점차 늘어날 추세입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약 44만 명 수준입니다.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 263만여 명 중 약 16.7%를 차지합니다. 그 가운데 수어를 구사할 수 있는 농인은 대략 10만~15만 명 정도이며 그 중 복음을 수어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농인은 약 7천 명 정도입니다. 또한 총회농아인선교회에 소속된 40명의 농인 목회자들 가운데 30대 목회자는 한 명도 없으며 50대 이상의 목회자가 가장 많습니다. 이들 중 약 5명은 5년 후 은퇴를 앞두고 있으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목회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른 생업으로 진출한 농인들도 있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17일 총회농아인선교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2년 동안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되었습니다. 총회농아인선교회 소속 농인교회들은 일반교회와의 원활하고 긴밀한 소통부재와 언

어적 장벽 때문에 영적 교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장벽을 허물기 위해 몇 가지를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1) 농인과 청인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 함께 예배하며 서로 이해하는 총농선교회가 되도록 힘 쓰겠습니다.
- 2) 함께 예배하는 순회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3) 총회 농아인선교회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은 복음 전파의 능력 회복과 농교육의 회복입니다.

한국농아인선교교육관이 건립된다면 국내외 농인 선교 사역과 함께 농인 인재와 농인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직 많은 농인들이 복음을 수어로 접해야 합니다. 목회자들의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이 열릴 때, 농인과 비농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은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 살아 계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쌓아 온 편견과 고정관념, 그리고 아집을 내려놓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능력을 회복할 때 다윗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단힘과 열림’을 고백했던 기도처럼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승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38:13~15)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닫힌 마음이 열리고 침묵 속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주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에바다, 열리라”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논문] 장애인신학 담론의 패러다임 변화: 재활, 자활, 전활

안교성 목사(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관장)

I. 서론

장애인신학(theology of disability)은 넓은 의미에서 장애학(disability studies)과 보조를 같이 합니다. 전반적으로 말해, 그동안 장애인신학과 장애학은 담론의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즉 패러다임이 유소년기를 중심으로 한 재활(再活)에서 청장년기를 중심으로 한 자활(自活)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장애인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중노년기를 포함한 전 생애를 중심으로 한 전활(全活)로 옮겨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활이란 용어는 종합(綜活)이나 총활(總活)로도 바꿀 수 있지만, 외우기 좋게 ‘ㅈ’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찾는 중에 선택한 용어입니다. 종합도 ‘ㅈ’자로 시작하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종합(終活)과 혼동될 염려가 있어서 피했습니다. 일본 복지학계 등에서 노년의 생애 마지막 막을 잘 맞이하기 위한 것을 종합(終活)이란 용어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전활은 재활, 자활, 종합(終活)을 모두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전활은 유소년기(재활), 청장년기(자활), 중노년기(추후에 해당 용어 개발 필요), 생애 마지막 시기(종합, 終活)을 포함하는 전 생애 주기에 관한 담론입니다.

특히 중노년 장애인 증가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새로운 사회적 추세이고, 이런 현상은 새로운 신학적, 학문적 도전을 의미합니다. 본 강연은 이 문제에 장애인신학자를 포함한 장애학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이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본 강연은 간단하게 전활 담론이 제기하는 도전을 몇 가지로 간추리고, 본격적인 연구는 이번에 정식으로 창립총회를 갖는 우리 장애인신학회의 연구 과제로 제안합니다.

서론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부언을 할 것은, 이 강연에서 제시하는 전활이라는 개념이 장애인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담론이라고 여겨지지만, 적용에 있어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변이가 많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특히 선천성 장애인과 중도 장애인의 경우, 적용상 많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전활을 구체적이고도 적합성과 적절성을 갖춘 담론으로 발전시키려면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예상됩니다.

II. 전활 담론의 몇 가지 도전들

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암묵적 전제 재고

기존의 재활과 자활 패러다임은 암묵적으로 장애인의 단명과 돌봄 당사자인 부모나 형제자매 등 가족 구성원의 장수를 전제하여 구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전제를 재검토할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장애인의 수명 증가로 인하여 장애인은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이후에 홀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고, 이것은 장애인의 사회 의존도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회, 특히 한국 사회가 이런 필요를 채워줄 만한 수준에 이르렀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그렇다고 선뜻 대답할 수 없다면, 장애인의 수명 증가는 시급하고도 전반적인 담론의 패러다임 변화를 요청합니다.

장애인의 사회 의존도 증가는 사회적 정책 측면도 있지만, 가족 이외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가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가족 이외의 이웃 중 하나인 교회의 다차원적인 측면을 재고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 중노년기 장애인 증가와 새로운 장애인 가족 유형 등장

중노년 장애인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그동안 장애인신학과 장애학이 우선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에 대한 장애인신학과 장애학의 연구와 대안 제시가 요청됩니다. 가령 장애인 가족 형태도 변합니다. 이전에는 장애인을 아동으로 둔 가족이 다수였다면, 이제는 장애인이 부모가 된 가족이 증가할 추세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신학적, 학문적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의 성, 결혼, 가족 구성(1인 가족 포함), 자녀 양육 및 교육, 중노년기 생애 영위 및 노년기 대비 등 다양한 문제를 더 이상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대안 마련을 미루거나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애인 자신은 물론이고 중노년 장애인을 남겨두고 사망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게도 위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결혼을 통해 출생한 장애인의 자녀가 장애인 부모와 더불어 사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애인 문제에 대한 책임이 급증하는 사회에도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3. 고령화 문제의 집약으로서의 장애인 고령화 문제 대두

현대 사회는 고령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사회가 가장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사회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자세가 그 사회의 수준을 말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고령인과 장애인의 새로운 관계에 접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고령인은 나이가 들수록 점차 장애인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 장애인은 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령 장애인 혹은 장애인 고령인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비장애인 특히 고령인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최근에 장애인을 위해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교회가 증가했는데, 막상 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자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는 교인은 고령인이고, 그 결과 승강기는 교회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노년기 장애인 증가 현상과 고령화 현상은 별개가 아니고 밀접하게 연결된 현상으로 이에 대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현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일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본 강연자는 코로나 현상과 장애인의 관계에 대한 논문의 제목에서, 비장애인의 상황을 코로나 블루라고 한다면 장애인의 상황은 코로나 블랙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¹⁾ 따라서 고령화 문제에서 장애인에게 더욱 배려하는 것에 각별하게 유의해야 합니다.

1) 안교성, “코로나 블루를 넘어 코로나 블랙으로-코로나 및 후기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 삶의 위기와 교회의 선교적 책무”, <장신논단> 54/3(2022.9): 71-93.

4. 기타 사항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채워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III. 결론

한국에서 장애인신학이 시작된 것은 20세기 후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신학이 계속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장애인신학회가 발족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의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지금이 가능한 한 가장 빠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장애인신학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비록 작고 연약한 우리 학회가 출범하지만, 겨자씨를 거목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회에서 장애인신학과 장애학의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먼저 이 일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에벤에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또한 우리 모두 서로 동학이 되고, 동료가 되고, 동지가 되어, 장애인신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우리 학회는 장애인신학과 장애학의 지평을 넓게 갈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신학교가 장애인 목회를 가르치고 장애인 목회자를 배출하도록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장애인신학의 열매로 장애인 선교가 활발해져서, 복음의 우선적인 대상인 장애인이 교회로 몰려들고 교회를 가득 채우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학회는 장애인 목회의 발전을 통해 장애인이 교회와 사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탬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목회사례]

주제 :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주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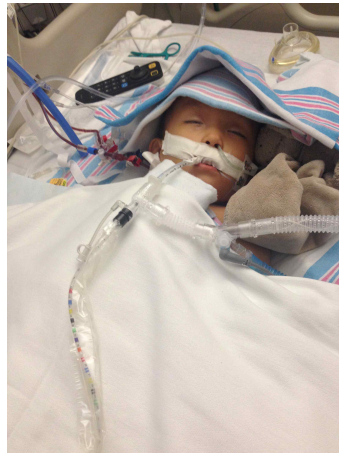
황성재 목사(주신교회)

1.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주신교회는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3년차 개척교회다. 2014년 선교 훈련 중, 첫째 아들의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신장과 뇌가 손상을 입었다.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었지만, 뇌는 뇌전증을 동반한 지적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은 이 발달장애를 또 다른 회복의 은혜로 주셨고, 그 일을 계기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셨다. 비장애인 중심의 시스템 안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도 참 소중하다. 많은 헌신과 기도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한 교회쯤은 발달장애인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는 공동체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발이 다친 사람에게 “내가 부축해 줄 테니 발이 안아픈 사람 처럼 빨리 가자”고 말하기보다,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추어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고 싶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롬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응급비행기를 타는 모습



투석과 솔리리스 신약 치료 중



회복을 주신 하나님

2. 아임히얼공동체

‘I’m here’ 공동체는 “맞아요! 조금 다른 우리 아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며, 발달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모임이다. 무엇보다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선교적 공동체다. 처음 시작은 신촌세브란스 입원실에서 만난 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기도 요청에서였다. 함께 기도하고 싶다는 그 한마디로 이 모임이 시작되었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수요일예배나 금요일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녀 곁을 늘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022년 1월 19일, 밤 10시에 줌을 통해 온라인 기도회가 시작되었다. 2024년 주신교회를 개척하기까지 함께 기도해 왔지만, 각자의 지역과 상황으로 인해 개척 멤버로 함께할 수는 없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다. 이 모임은 거창한 계획보다, 한 사람의 기도요청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는

화요일 밤 10시에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해 왔고, 분기마다 주신교회에 모여 발달장애인을 초청하는 선교적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3. 주신교회

발달장애인들이 교회의 문턱을 넘는 일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애 신학과 장애 인식의 부재로 인해 발달장애인 가정이 교회 안에서 살롬을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형교회 장애인 부서처럼 예산과 장소, 인력을 갖춘 시스템이 있다면 발달장애인 가정이 찾아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개척교회를 찾아오는 일은 더 어렵게 다가올 것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주신교회는 미셔널 처치로서, 발달장애인의 삶의 자리로 보냄 받은 교회가 되고자 했다. 발달장애인의 삶의 공간은 주로 가정과 학교, 그리고 발달센터다. 교회가 그 자리로 보냄 받는다는 의미로, 교회 안에 ‘아임히얼 발달심리센터’를 세우게 되었다. 나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상담하고, 사모는 미술치료를 진행하며 함께 섬기고 있다. ‘아임히얼 발달심리센터’를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교적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1) 연합사역

주신교회는 장로교 합신 교단에 속한 수원천성교회가 세운 장로교 통합 측 교회이다. 합신 교단이 타 교단 교회를 세운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교단의 특성을 넘어 함께 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발달장애인을 향한 공흥의 마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게 하셨다.

2) 통합예배

주신교회의 예배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드리는 통합예배다. 주일이 되면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어서 장년예배가 진행된다. 그동안 아이들은 미술활동을 통해 말씀을 배운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 식사하고, 이후에는 반별로 개별화 학습활동을 이어 간다. 통합예배를 드리다 보면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함께 깊어져 간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일성’ 안에서, 서로의 다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다양성’을 함께 품으며 예배한다.

3) 아임히얼 수련회

아임히얼 수련회는 아임히얼 발달심리센터에 오는 이들과 주변의 발달장애인 가정을 초청해 환대하며 함께 예배하는 선교적 모임이다. 비장애인 중심의 수련회에 발달장애인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수련회로 기획하고 진행했다. 처음 시도하는 일이었기에 많은 준비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통합'의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기도하며 기획하는 과정 자체가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교사와 봉사자뿐 아니라 부모도 함께 수련회에 참여했고,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통합된 공간에서 살롬을 누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다.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지현이가 수련회에 함께한 일이었다. 지현이는 미국 학회에서 병명을 정확히 진단받지 못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살이지만 치료의 여정 때문에 지금까지 외부 모임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처음으로 공식적인 외출을 하게 되었고 산소호흡기를 낀 채 아임히얼 수련회에 함께했다. 누운 채 한 공간에 함께한 용감한 지현이를 바라보며, 새로운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는 시간을 되었다.



공동체프로그램



기도회



레크레이션

4) 발달장애인 세례 및 입교

발달장애인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이미지에 맞추어 세례 문답집을 만들었다. 장로교 통합 측의 예배·예식서를 근거로,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신앙 공동체



단체사진



찬양시간

가 ‘중개인’으로 세움받아 교육을 받고, 구어로 고백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신해 함께 세례의 고백에 참여했다.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며 진행된 세례식 가운데, 구어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예준이도 서약 시간에 네 가지 질문에 모두 입술을 움직이며 응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육 때에는 입술로 반응한 적이 없었기에, 그 장면은 더욱 놀랍고 은혜로 가득한 순간이었다. 비록 “네, 그렇습니다”라고 또렷하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질문에 맞추어 입술이 움직였고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곁에 있던 중개인과 신앙 공동체가 함께 큰 목소리로 고백해 주었다. 또한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주현이는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괴물”이라고 대답해 모두를 웃게 했다. 잠시 기다려 주고, 다시 천천히 문자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엄숙한 세례식 가운데 3~5분을 기다리는 시간은 숨을 죽이고 버텨야 하는 순간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시간은 결코 길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림마저 은혜였고, 함께하는 모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는 시간이었다는 것이 감사했다.



예준이 세례



주현이 세례교육



발달장애인 세례문답 자료

5) 발달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교재를 제작하여 사용

발달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교재가 한국교회 안에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 목사님들과 함께 직접 교재를 쓰고 사용하고 있다. 신앙 언어를 가능한 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적절한 그림을 활용해 이해를 도왔기에 발달장애인 성도들이 특히 좋아하는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 저도 알고 싶어요



대림절 - 아기로 오신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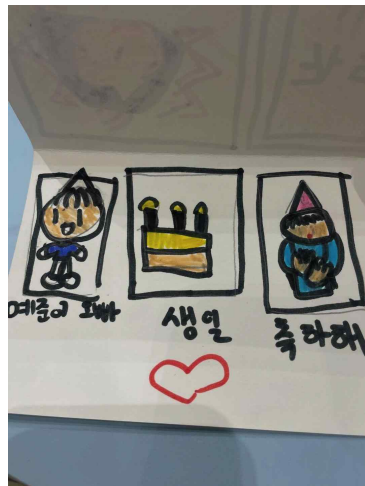
저자 곽호, 진영채 목사님과

6)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공간 만들기

우리 사회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있고, 지체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알려 줄 수 있는 요소는 여전히 많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AAC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발달장애인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 동시에 발달장애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갔다. 보이는 시설만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행시



생일카드



예배순서

7) 온라인 사역

고립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가정에 위로와 힘을 전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유튜브 ‘아임히얼’ 채널과 ‘주신교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쉽게 나누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풀어내며,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가정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채널에서는 장애에 대한 이해와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역의 다양한 모습들을 담아 나누고 있다. 일상의 작은 이야기부터 실제 사역의 현장까지, 꾸밈없이 기록하며 진솔하게 전하고자 한다. 이 채널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고 전해 오는 분들도 있고,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담아 두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놓는 분들도 있다. 영상을 보고 무료 오픈 시간에 직접 찾아와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화면을 통해 시작된 작은 연결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며, 또 다른 위로와 나눔의 시간이 되고 있다.



I'm here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당당히 외치는 소리입니다.

발달 장애인과 함께 하는 공동체

4. 아임히얼발달심리센터

주신교회의 장소를 정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건물주들이 교회를 반기지 않았고,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이유로 더 큰 제약이 따랐다.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부담없이 찾아 올수 있는 바우처 기관으로 운영해야 했기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시설을 갖춘 장소여야 했다. 턱이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장애인 화장실도 필요했다. 또한 주차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야 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장소를 찾기 위해 6개월 동안 수많은 곳을 살핀 끝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신도시로 인도해 주셨다. 교회 안에 아임히얼 발달심리센터가 들어오면서 비장애인 성도들이 사용할 공간은 줄어들게 되었다. 식당과 교육관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공간은 감각통합치료실, 미술치료실, 언어치료실, 음악치료실, 상담실 등으로 바뀌어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해 사용되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비장애인 성도들도 이 공간을 키즈카페처럼 여기며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임히얼 발달심리센터는 성남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송파장애인부모연대 등과 MOU를 맺었고, 기관의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게 되었다.

1) 발달장애 자녀를 둔 가정 상담 및 치료사역

MOU를 맺은 기관을 통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상담의 기회를 얻고,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고 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로서 대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길을 걸어온 경험 속에서 얻은 공감과 기다림으로 상담에 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회복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다른 가정에도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있다. 부모 상담과 개인 상담, 가족 상담과 부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각 가정의 상황과 필요에 맞추어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심리검사, 미술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 걸어가고 있다.



감각통합치료실



미술치료실



부부상담



개인상담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미술치료

2) 아이미얼발달심리센터 무료오픈


토요일은 지역사회에 무료로 센터 공간을 열어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정들이 자유롭게 찾아와 잠시 숨을 고르고 쉬어 가며,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환대를 경험하고 있다. 교회 선생님들은 봉사자로 참여해 발달장애인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함께 놀고 활동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 시간은 누군가를 돕는 자리가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함께 웃으며 동행하는 시간이 되고 있다. 처음 센터를 찾은 부모들도 발달장애 가정을 위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를 표현한다.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서로 위로를 얻고, 그동안 마음에 담아 두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회복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다. 그렇게 형성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3) 장애인식개선 강의

성도들과 함께 장애 인식 개선 강의를 준비하며 관련 내용을 공부했다. 여름 특강으로는 장애의 개념과 분류, 장애 감수성,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을 주제로 각자가 맡은 부분을 나누어 강의했다. 그 과정 속에서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주관하는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자격증도 받게 되었다.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시간을 넘어, 우리 스스로의 시선을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을 통해 성도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i'm here' 발달심리센터

발달장애인 가정의 심의 공간이 되도록,
센터를 무료개방합니다.
자녀와 함께 '아임히어'를 느끼는
평안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되는 프로그램

- 1 **발달장애부모상담**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하며 느끼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관계, 자녀양육, 우울, 불안, 분노 등)
- 2 **미술활동**
원장님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원장님도 발달장애인 부모입니다.
- 3 **장애인식개선**
뜻밖에도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장애인식개선 강사가 함께 합니다)
- 4 **도서대여**
발달장애, 장애인식개선, 심리상담, 회복, 그림책 관련된 도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i'm here' 발달심리센터 이용가능시간

	화	목	토
● 10시-12시			
● 13시-15시			
● 15시30분-17시30분			

간단한 간식 제공(커피, 차, 주스 등)
주차 무료 제공(2시간 30분)
BUT 다음 분 위한 뒷정리 필수!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다.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규모가 있는 기업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소망한다.




5. Four Friends 모임(동역자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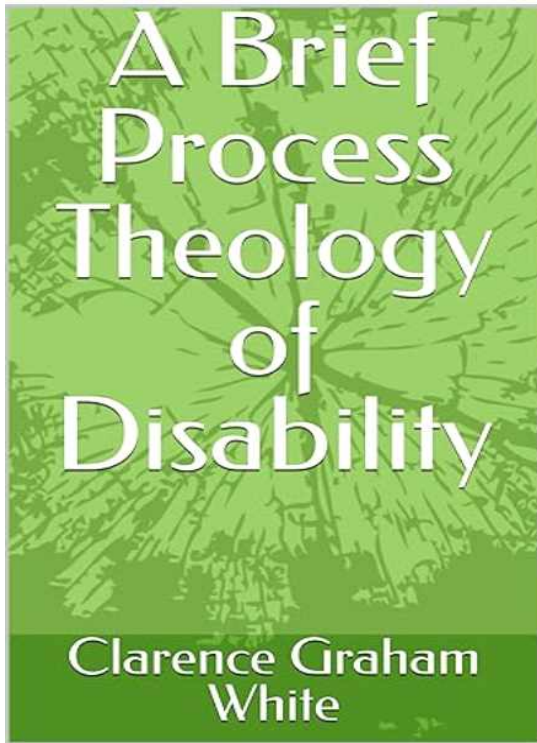
'Four Friends'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네 친구를 의미한다.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때, 지붕을 뚫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갔던 그 친구들처럼, 발달장애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비장애인들의 모임이다. 2014년부터 첫째 아들을 위해 기도해 온 중보자들과 소망교회와 수원천성교회의 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다. 오랜 시간 기도로 함께해 온 이들이 이제는 같은 자리에서 직접 동행하는 공동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받고, 아임히어 모임과 수련회에서 1:1 매칭 교사로 섬기고 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고자 하는 비장애인들의 참여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통합의 공간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다.



발달장애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해 도움을 주는 자로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천천히 걷다 보면, 연약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연약한 점이 많지만, 존재 자체로 공동체의 중심에 설 수 있으며, 누구보다 깊은 사랑을 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발달장애인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 신학 Disability Theology 서적 소개

(※ 다음의 책은 amazon  Deliver to Republic of Korea 에서 자료를 이미지를 다운받아 한글로 소개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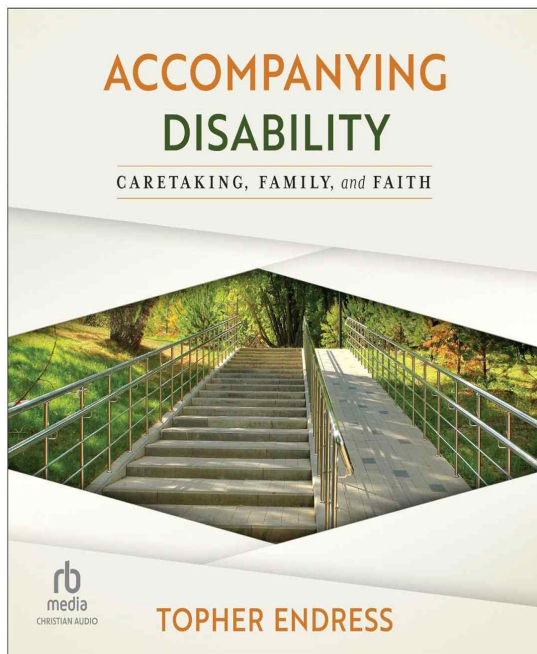


장애신학 과정의 단편적 고찰

Clarence Graham White(2024), Kindle Edition.

이 책은 인류 역사 초기부터 사람들을 괴롭혀 온 질문, 즉 "왜 어떤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저자는 성경적, 신학적 자료, 특히 과정신학적 관점에서 장애는 신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유한성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견해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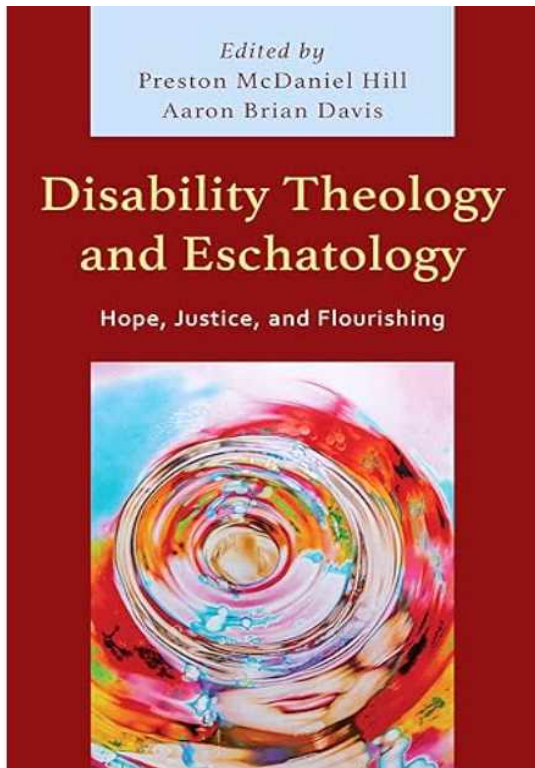
또한, 이 책은 신앙 공동체가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사역에 어떻게 참여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장애와 함께 하기: 돌봄, 가족, 그리고 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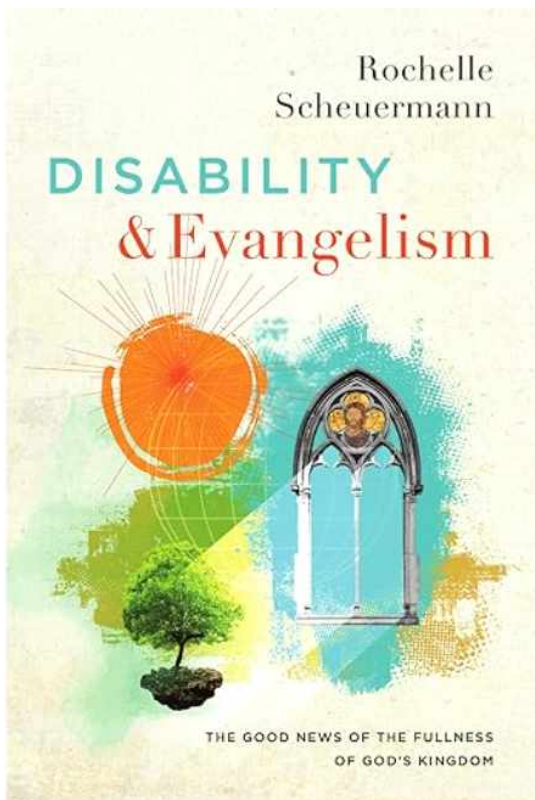
Topher Endress(2025), 오디오북, Christian Audio

저자는 전신마비인 아버지를 둔 목사이자 신학자로서 풍부한 통찰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 아버지의 글, 그리고 성경에 기반한 묵상을 통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장애를 가진 사랑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돌보거나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여정을 함께하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는 능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이 책은 사랑하는 장애인들과 의미 있고 존중하며 충만한 관계를 맺는 데 귀중한 통찰력과 지침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능력과 가치를 오해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세상에서, 이 책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상호 존중, 존엄성, 그리고 애정을 바탕으로 장애를 가진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따뜻하고 믿음에 찬 모델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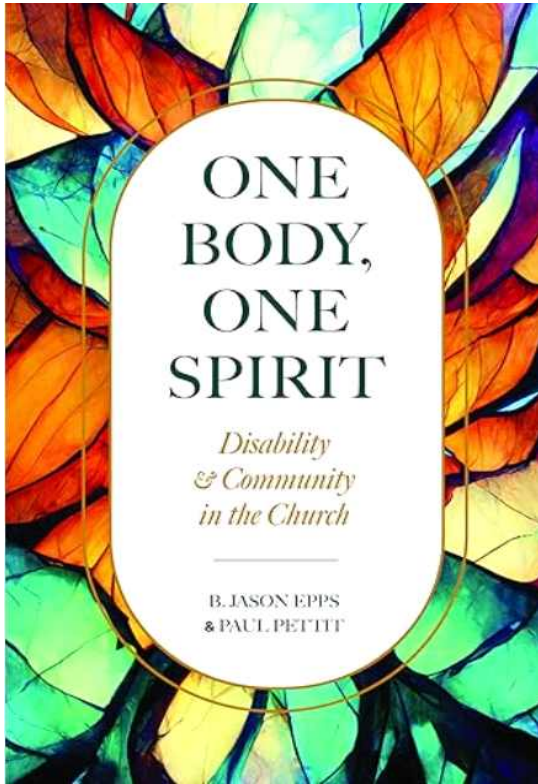
장애신학과 종말론: 희망, 정의, 변영

Harvey Cawdron(2025). Lexington Books
 기독교 신학은 모든 것이 완성되어 궁극적으로 희망, 정의, 변영이 승리하는 세상을 고대한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완벽하게 하나 될 것이며, 모든 것이 평화로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장애인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 『장애 신학과 종말론: 희망, 정의, 변영』 이 책은 특히 그동안 소홀히 여겨졌던 정신 장애를 포함하여, 심도 있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장애 신학 분야의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킨다. 기고자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높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토마스주의자는 반드시 장애인 차별주의자여야 할까?”, “우리의 미의 기준은 종말론적 사고를 어떻게 제한하는가?”, “해리성 정체성 장애는 사후 세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을 던지고 답한다.



장애와 전도 :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복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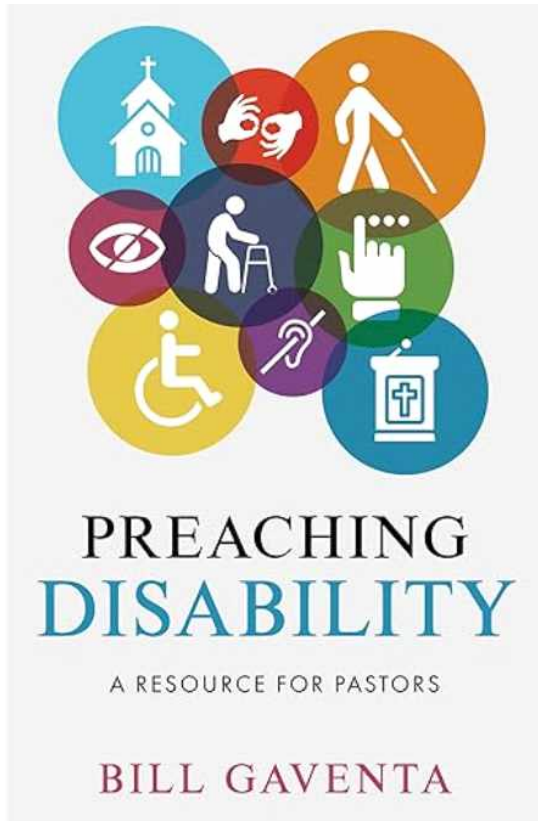
Rochelle Scheuermann(2026) IVP Academic
 저자는 이 책에서 장애인을 전도의 모든 측면에 포함시키는 비전을 제시한다. 복음 이야기를 이해하고 전하는 방식부터 장애인들과 함께,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는 방식까지 다룬다. 이 획기적인 책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중심에 장애인이 있도록 전도 신학과 실천을 재구성하도록 이끌어준다. 슈어만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장애의 복잡성에 어떻게 응답하는지, 그리고 모든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과 메시지를 어떻게 제공하는지 밝혀낸다. 나아가 회심에 대한 이해, 장애인 편의 제공에 대한 확장된 이해, 그리고 사역에서의 상호 의존성 추구 등 전도 실천의 여러 문제들을 탐구한다.



하나의 몸, 하나의 영: 교회 안에서 장애와 공동체
 Paul Pettit & B. Jason Epps(2024).Kregel Ministry.
 이 책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예배 장소, 교실, 소그룹 모임 등에 대한 물리적 장벽은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서 소외시킨다.
- 두려움과 편견과 같은 정서적 장벽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영적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

교회 공동체는,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성경에 근거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그 길을 안내한다. 그들은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장애에 대해 조사하고, 완전한 통합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장애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교회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5단계 계획을 제공한다



장애에 대해 설교하기-목회자를 위한 자료
 Bill Gaventa(2026).Eerdmans

이 획기적인 지침서는 목회자들이 장애를 죄에 대한 벌이나 영감의 원천으로 여기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넘어, 장애인의 온전한 인간성과 영적인 깊이를 존중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장애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성경적 주제를 발견하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와 관련된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설교를 준비하든, 포용적인 사역을 이끌든, 혹은 단순히 인간 경험의 이러한 측면을 어떻게 진정성 있게 다룰지 고민하든, 이 자료는 다음과 같은 도움을 제공한다. 성경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장애에 대한 새로운 통찰, 신학과 장애에 관한 폭넓은 문헌 소개, 목회자, 신학생, 교회 지도자에게 적합한 하고 강단 사역의 맥락에서 장애를 집중적으로 다룬 최초의 책. 접근하기 쉽고, 흥미로우며, 지속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풍부한 이 책은 사역자들이 장애인을 온전히 환영하고, 이를 통해 온 회중에게 영적인 진리를 밝힐 수 있도록 돕는다



Disability Studies and Biblical Liter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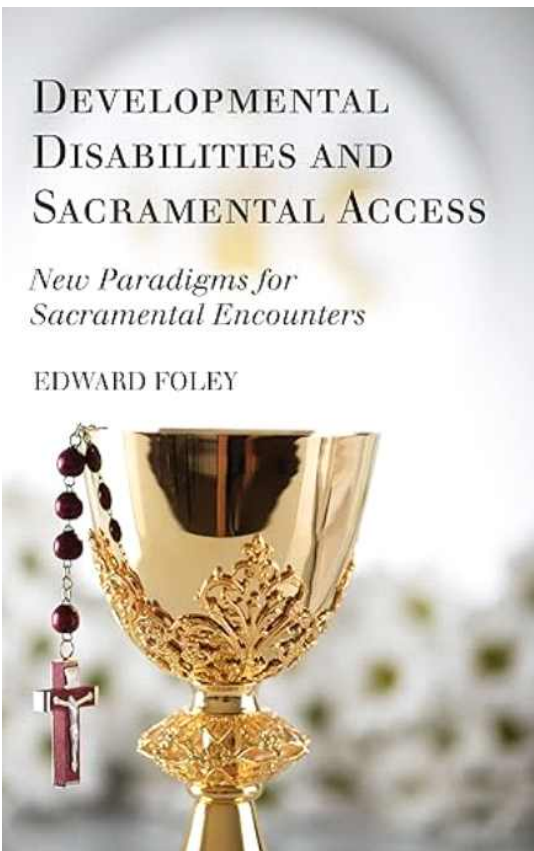
EDITED BY
CANDIDA R. MOSS AND
JEREMY SCHIPPER



장애학과 성서문헌

Edited by Candida R. Moss & Jeremy Schipper.
(2011). Palgrave Macmillan

성서학자들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모델을 활용하여 히브리 및 기독교 성서 본문을 읽는 데 중요한 미묘한 차이를 도입한다. 이 책은 서구 세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종교적 태도를 다룬 기존 논의들이 얼마나 피상적이고 일반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저자들은 장애를 더 중요하고 위대한 영적 진리 뒤에 숨기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영적 통찰력이 물질적 경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사고방식을 포함하여 '장애'라는 개념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타파한다. 장애인들이 마침내 이 성경 본문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개별 성서 본문의 이질성과 복잡한 문화적, 역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춘 이 학자들은 고대 세계가 텍스트를 통해 장애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제공한다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SACRAMENTAL ACCESS

*New Paradigms for
Sacramental Encounters*

EDWARD FOLEY

발달 장애와 성례의식의 접근-성례의식의 만남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Editor Edward Foley (2020). Wipf & Stock Publishers

발달 장애 때문에 세례받은 사람이 상찬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합당한 이유가 되는가? 이 책은 바로 이 불편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현실적으로 발달 장애를 가진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성사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차별을 받거나 교회의 성사 생활에서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가톨릭 신학대학(Catholic Theological Union)과 시카고 대교구 특별 종교 교육 사무국의 사목 신학자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이 책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룬다. 성경적 관점에서부터 윤리적, 교회법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와 성사에 의해 포용되어야 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성사적 만남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총회채택문서]

전국 노회원 대상 노회별 장애인식교육 - 연1회 정기실시

(제105회 총회 채택, 2020년)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되고,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된 지 31년이 지났습니다. 장애의 범주 역시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의 5개의 범주에서 2000년 1월1일부터 내부기관의 장애, 외부 기관의 장애 등 15개의 범주로 확대되었습니다. WHO에는 1981년 신체와 감각 이상의 관점에서 장애를 정의하던 시기를 넘어서 1997년 이후 환경 중심에서 활동과 참여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장애를 새롭게 정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요9:1~10에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시각장애인 된 것은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시며 장애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나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는 장애의 관점이 변화되는 국제적 흐름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에 따라 성경에서 장애를 표현하는 용어도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즉 과거 “소경, 병어리, 앓은뱅이, 절뚝발이, 문둥병 등” 장애를 폄하하는 용어를 사용했던 과거의 표현에서 벗어나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한센병 등”의 법적 용어를 기초로 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장애용어표현이 여러 번의 개정을 통하여 법적 용어로 번역이 되었음에도 목회자의 설교 안에 폄하된 장애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 뿐 아니라 시민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앞장 서야 할 존재입니다. 장애인식개선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이슈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회자들을 통해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이고 폄하된 용어가 반복적으로 표현됨으로 인하여 기독교인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조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지금의 현실은 교단차원의 교육과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매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장애인개선교육의 의무사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비록 교회는 이 법률에 적용되지 않지만, 법률 보다 더 나아가 장애인을 향한 예수님의 관점과 성경 전체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를 통해서 교회는 물론 사회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영향을 끼쳐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총회 사회봉사부는 각 노회가 노회 사회봉사부 주최로 노회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고, 이 결과를 총회 사회봉사부 보고를 통해 매 정기총회 시 총대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우리 교단이 한국교회가 「장애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교회」로서 성경적 교회상을 확산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에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위치를 갖게 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전국 노회가 노회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 사회봉사부에 제출하며, 이를 매년 총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선언 및 목회지침서

(제100회 총회 채택, 2015년)

1.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선언

1912년 평양에서 “조선예수교장로회”가 출범한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100회 총회를 넘어서 200회 총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다. 1894년 셔우드(R. Sherwood) 선교사가 시각 장애 여성 오봉래에게 복음을 전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장애인복지선교의 역사도 200주년을 향하고 있다. 총회는 장애인 현장의 선포, 장애인교회, 장애인부 교회학교,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목회자 양성, 발달(지적)장애인 세례, 장애인신학 등 장애인복지선교분야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지를 실천해 왔다. UN에서는 “장애인권리협약”을 선포하여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옹호 받도록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함을 천명하였다. 더 나아가 세계교회협의회(WCC), 세계선교협의회(CWM) 등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회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는 2015년 100회 총회를 맞이하여, 2115년 200회 총회를 바라보면서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권리선언 및 목회지침서”를 공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우리 총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장애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등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권리 주체임을 선포한다. 또한 세계 선교현장에서 장애인복지선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강령으로서 목회지침서를 채택하는 바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성서적·기독교적 장애인의 권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하나. 장애인(Person with Disabilities)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로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을 수 없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의 몸인 교회에 접근하는데 필요한 유·무형의 모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장애의 유무, 범주, 정도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떠한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교회의 모든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기회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자신이나 타인 그리고 사회에 의해 장애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역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은 이웃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고 세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 교회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유익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 장애인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하나.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교회는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이 선언에 포함된 권리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II.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목회 지침서

1. 생애주기에 따른 목회 과제

1) 영유아기(0세~5세)

- ① [조기발견 및 정보제공] 교회는 영·유아들에게서 장애 또는 장애위험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확한 진단과 사정을 통하여 조기개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회는 영유아를 둔 부모들에게 장애의 조기발견과 예방 그리고 장애에 대한 성서적 관점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조기 개입과 장애예방] 교회는 장애 혹은 장애 위험성이 있는 영유아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게 조기에 적절한 재활과 치료 및 교육,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의 예방과 장애의 중증화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③ [가족지원] 장애인 가족들은 장애의 출현으로 심리적/정서적/사회적/경제적/신앙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는 장애자녀를 둔 부모들이 동료상담, 성경공부 등의 다양한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서로 돕는 신앙/생활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신앙생활에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교회는 장애 혹은 장애 위험성이 있는 영유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예배 공동체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이러한 영유아들의 이동과 접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최소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장애에 대하여 성경에 기초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고 장애 혹은 장애 위험성이 있는 영유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⑤ [신앙공동체 교육] 교회는 장애 혹은 장애 위험성이 있는 영유아들과 함께하는 교회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이들이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신앙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의 교회학교 영유아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통합교육과 양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⑥ [자원동원] 교회는 장애 혹은 장애 위험성이 있는 영유아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신앙/교육/재활/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인적/물적/영적 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2) 학령기(아동·청소년기, 6세~18세)

- ① [교육지원]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가진 능력과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발견/개발하고 그에 적합한 개별화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교회는 장애인의 신앙교육을 올바르게 실시할 수 있는 지도자와 교사 양성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발달기에 직면할 수 있는 정서적/사회적/성적욕구를 신앙적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자기주장/상담/교육/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거나 지원을 통하여 아동·청소년기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가족지원]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과 부모들이 캠프, 동료상담, 활동지원, 성경공부 및 또래 모임과 부모모임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당면한 과제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과 비장애 형제·자매들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를 가진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④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물리적인 공간 뿐 아니라 성경공부/캠프 등 모든 모임에 있어서 이동과 접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동등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예배/교육 활동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⑤ [신앙공동체 교육]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를 맞이하여 심리적/정서적/사회적/경제적/신앙적 부분에 있어서 균형적인 발달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또래들과의 다양한 통합교육 및 활동들을 통하여 학교와 사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이해하고 서로 포용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회는 적극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성례전]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교회구성원의 일원이 되는 세례(입교)와 성만찬에 있어서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 교회는 총회에서 제정한 세례(입교) 지침서를 따라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세례(입교) 및 성만찬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자원동원]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신앙/교육/재활/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교회의 인적/물적/영적 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 ⑧ [기타] 교회는 아동·청소년기의 장애인들이 사춘기 신체적/정신적/성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3) 청년기(19~40세)

- ① [취업 및 고용지원]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교육, 취업알선 및 고용지원을 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들의 특성과 능력에 따른 다양한 고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지역사회 활동지원]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자원봉사 등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③ [자립생활지원]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이 가족들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의지에 따른 의사결정 및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활동지원을 통하여 독립적인 성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결혼과 가정] 교회는 청년기 장애인들이 결혼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결혼 전/ 후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출산, 육아, 생활, 교육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 가정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⑤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신앙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청년기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제약이 최소화된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성도로서) 예배와 성례전, 교회의 직제와 교회의 행사 등에서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⑥ [옹호] 교회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옹호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때로는 청년기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들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후견인 제도를 통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⑦ [자원동원] 교회는 인적·물적·영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청년기의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신앙/직업/생활/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장년기(41세~65세)

- ① [고용 및 직장생활 지원]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및 직장생활 지원을 실천해야 한다. 아울러서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이 교회내의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지역사회 활동지원] 교회는 장년기 장애인의 생활 공동체로서 이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다양한 교육·문화·여가 활동들을 지속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다양한 인적·물적·영적 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 ③ [자립생활지원]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른 의사결정 및 선택을 통해 자립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가정생활 지원]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이 행복한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가정의 자녀 양육과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 가정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의 이동과 접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최소제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성도로서) 예배와 성례전, 교회의 직제와 행사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
- ⑥ [옹호] 장년기의 장애인들의 부모들이 노화나 사고 등으로 인해 지원이나 돌봄이 감당하지 못하여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교회는 그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옹호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⑦ [자원동원] 교회는 장년기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신앙/직업/생활/문화/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의 인적/물적/영적 자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5) 노년기(65세~)

- ① [돌봄 및 지원서비스] 교회는 장애와 노화라는 두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노년기의 장애인들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와 적절한 의료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② [환영과 환대의 공동체] 교회는 노년기의 장애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환대하는 공동체여야 한다. 교회는 노년기의 장애인들에게 이동과 접근, 의사소통 등에 있어서 최소제한적인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예배와 성례전, 교회의 직제와 교회의 행사 등에서 노화와 장애를 이유로 소외됨이 없어야 한다.
- ③ [영성·생활공동체] 교회는 장애와 노화라는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과 생활공동체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 교회는 노년기의 장애인들이 마지막까지 신앙 안에서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성·생활공동체의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
- ④ [아름다운 마무리] 교회는 노년기의 장애인들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2. 장애인과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복음은 장애인에게도 기쁜 소식이다. “장애”와 “장애인”을 향한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새롭고 깊게 깨우치고 배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성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장애인과 함께 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지체인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삶을 이 세상에서 실천에 옮김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임을 증명해야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인 신앙과 직제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차원에서 고찰하고 실천해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1) 신앙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쁜 소식이며,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집이다. 바울은 일찍이 교회공동체는 인종, 성, 계층(계급)의 구별을 넘어서는 보편적 공동체임을 밝혔다. 이제 이 가르침은 장애에도 적용되어야 함을 깊이 인식하며, 그런 인식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 ① [예배] 신앙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장애인이 차별을 받거나 방해로 받는 일을 최소화해야하고, 오히려 장애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예배의식과 예배장소는 장애인의 접근성(Accessibility)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합예배(Inclusive Service)와 장애인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특별

- 예배(Individualized Service)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 ② [교육] 교육도 통합교육과 개별화된 교육이 동시에 추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성서에 입각한 장애(인)관을 교육시켜야 한다. 아울러 장애인과 함께하는 목회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지도자(목회자) 양성과 배치에 교회와 신학대학은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전도(선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실천에 옮기는 도구이다. 하나님은 장애인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임 받는 도구로 삼으신다. 따라서 예수님이 장애인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교회는 장애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여야 한다. 아울러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을 통해서 비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온 것과 같이, 장애인도 전도(선교)에 있어서 주체적인 도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 ④ [봉사] 교회의 봉사는 섬김과 나눔을 기초로 하는 디아코니아(Diakonia)를 본질로 한다. 이는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도의 일부이다. 교회구성원은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를 향하여 디아코니아적 봉사를 신앙의 본질로 인식하고, 장애인을 향한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예수님을 섬기듯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도 섬김과 봉사의 주체요 동역자로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⑤ [친교] 예수님은 성례전을 통하여 “살과 피를 나눔” 속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을 보여주셨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하여 교회 구성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부탁하셨다. 초대교회의 교제를 통한 하나됨이 교회가 지향해야 할 원형이다. 교회는 장애 유무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사랑을 나누고 친교함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교회는 친교공동체로 성숙해나가고,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을 구현해야 한다. 이 친교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야 하며, 친교가 더 넓은 친교를 방해하는 내향적이고 폐쇄적인 친교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 직제

과거에는 구태의연한 성서해석을 기초로 하여 장애인이 교회의 직제에 참여할 기회를 막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서는 장애가 인간의 보편적 특성 중의 하나이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데 장애인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교회의 직제에서 장애로 인하여 차별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장애와 관계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어야 한다.

- ① [목사(목회자)] 목사는 목회를 위하여 장애의 본질과 현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목회에 반영하며, 아울러 교회 구성원이 장애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장하며 성숙하도록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목사는 특히 장애인이 목사의 소명과 사명을 이뤄나가는데 도움을 주어야 하며, 교회가 목사로서 장애인의 고유성과 은사를 이해하고 동역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 ② [장로] 장로는 목사와 더불어 교회구성원의 영적 건전성을 위해 섬김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도로서 장애인이 신앙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장/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성도로서 장애인이 교회의 지도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의하고 배려해야 한다.
- ③ [집사] 개혁교회는 교회의 봉사를 위한 직제로서 집사를 강조한다. 성서적 집사직의 회복이 성도로서 장애인을 돌보는 교회내적인 봉사와, 장애인 일반을 섬기는 교회외적인

봉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성도로서 장애인이 봉사에 참여하고 주체가 되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3) 입교와 세례

개신교회에서는 교회 현장에서 행해지는 세례(입교) 및 성찬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으로서의 은총을 고백하는 유일한 예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선교대위임령은 성례가 회중의 신앙과 삶에서 그 의미를 구현하도록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성도로서의 장애인이 기존의 신학적 편견이나 물이해에 의해 정당한 영적 권리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성도로서의 장애인과 관련된 성례전신학을 적극 발전시키고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 및 교육 일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3. 교회의 역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 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은혜와 복의 통로이고, 제사장적인 중보의 자리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전개하는 현장이다. 교회는 장애 차별 없이 장애인과 함께 하고 장애인복지선교사역을 교회의 기본 사역으로 전개하며, 교회의 모든 은혜와 사역에 있어서 장애인을 평등하게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총회의 장애인복지선교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권리선언 및 목회지침을 위하여 지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 교회는 세상에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장애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해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한다.
-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넘어 하나의 신앙으로 사랑의 공동체성을 지킴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제시한다.
- 교회는 존립과 구성 그리고 사역과 활동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온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현한다.
- 교회는 장애인복지선교를 활성화하며,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장애인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사랑의 관심을 기울인다.

1) 지교회

- ① 지교회는 장애인복지선교의 일차적인 현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을 방문·초청·환영 하고, 장애인이 교회생활, 곧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와 봉사 프로그램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지교회는 장애인을 교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존중하며, 교회의 모든 사역, 곧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와 봉사 등의 사역을 기획·준비·시행·평가하는 일에 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지교회는 장애인복지선교와 장애인의 교회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선교를 위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친교와 봉사를 위한 부서를 조직·운영하며, 지교회 내의 다른 모든 부서들과 유기적으로 연계·연합한다.
- ④ 지교회는 교회 안팎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

와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필요한 자문, 상담, 가족지원과 격려의 활동을 한다.

- ⑤ 지교회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시설을 설립 혹은 수탁 운영하거나 또는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시설을 후원 및 지원한다.
- ⑥ 지교회는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하여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장애인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행사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2) 노회

- ① 노회는 총회의 정책을 따라 노회 내 지교회들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적극 격려하고, 지교회가 실제적인 장애인복지선교 사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과 행사와 지원과 후원을 제공한다.
- ② 노회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하여 전담부서나 기구를 조직 운영하고, 노회 내모범적으로 장애인복지선교를 선도하는 교회의 사례를 발굴 소개하고, 순회 또는 연합 예배와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노회 내 모든 지교회가 장애인복지선교사역을 활발히 하도록 한다.
- ③ 노회는 노회 내 지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한 욕구를 조사 보고하고, 지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에 따른 결과와 평가를 수렴 보고하여,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총회의 정책 수립과 프로그램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
- ④ 노회는 노회 내 장애인교회, 교회 장애인부서, 장애인선교회는 물론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기관이나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장애인과 그의 가정을 지원하고 무장애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교회·교단·교파를 넘어서 에큐메니칼 연대 안에서 협력한다.

3) 총회

- ① 총회는 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교회의 본질사역으로 천명하고, 교단 산하 모든 교회로 하여금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선교를 하도록 권고하고 격려한다.
- ② 총회는 교단 산하 노회와 노회 소속 지교회가 장애인복지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신학 정립, 정책 수립,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각양의 후원을 제공한다.
- ③ 총회는 장애인복지선교와 관련하여 신학교에서의 과목교육과 총회 차원에서의 목회자 평생교육을 전개한다.
- ④ 총회는 장애인목회자와 장애인사역자를 위한 계속 교육과 함께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후원한다.
- ⑤ 총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국 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를 위하여 교회·교단·교파를 초월하여 비전을 공유하고 연대한다.
- ⑥ 총회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한국 사회의 장애 차별이 없는 완전한 통합과 평등한 참여를 위하여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NGO, 복지기관이나 시설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복지선교 사역을 전개한다.

4. 장애인과 지역사회

교회는 교회 구성원과 이웃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 가운데 서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지리적 경계(Geographical boundary), 상호작용(Social interaction),

공동체 의식(Consciousness)으로 구성된 지역사회(Community)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로 인하여 현대인은 고립되고(isolated)과 소외된(alienated) 상태에서 이웃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22:39, 막12:31, 눅10:27)”를 실천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회복을 향한 교회의 사명과 책임이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은 지역사회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다. 교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이웃의식(Neighborhood)과 상호작용의 회복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① [지역사회 안에서의 더불어 사는 환경 조성] 교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장애를 경험하는 조건들을 해소하여 장애인 지역사회(Disabling Community)가 되지 않고, “장애인에게 편리하면 모든 이들에게 더욱 편리하다”라는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관점에서 “무장애 지역사회(Barrier Free in Community)”를 만드는데 책임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고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해야 한다.
- ②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관련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에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관은 주민자치센터/시군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다.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공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교회를 다니거나 지역사회 내에 있는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한 축이 되어야 한다.
- ③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관련 서비스 정보 제공] 교회는 이미 존재하는 공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그들의 정보를 비치하거나 제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교회에 다니는 장애인과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에게 필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 증진 및 옹호 역할 증진] 장애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중받음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을 받고, 또한 자기주장을 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함에 있어서 교회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장애인이 인권을 침해받거나 차별받는 일을 최소화 할 뿐 아니라 당당한 지역주민으로 지역사회 내 모든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 ⑤ [지역사회 내 장애인 교육·복지 관련 기관 설립·운영 및 후원] 지역사회 내에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을 직접 설립하거나 위탁운영을 통하여 교회의 재정을 장애인의 삶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고 또는 교회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장애인에게 믿음과 사랑이 동반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미 설립되어 있는 타기관이 운영하는 교육·복지기관에 재정 후원이나 봉사인력을 파송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한다.
- ⑥ [교회 내 자원봉사 인력의 활용을 통한 장애인 봉사] 이동지원을 포함한 활동보조/밀반찬 제공/전화 대화 등의 봉사를 위하여 교회의 다양한 조직을 활용하여 장애인에 대한 봉사지원을 활성화하도록 한다.
- ⑦ [장애인이 가진 은사를 발휘할 기회 제공] 교회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완전한 참여를 통한 소속감을 강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교회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야

- 한다.
- ⑧ [교회 구성원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장애인 우선 고용 및 접근권 확대] 교회 구성원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장에서 윤리경영과 사랑의 실천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고취시키는 것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특히 교회 구성원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장애인을 우선 고용하거나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에 차별이 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을 만나시고 사랑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지역사회 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⑨ [장애인과 의사소통 활성화] 교회는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수화(어)통역사의 배치/하고 아울리 점자/의사소통 보조기구(AAC)의 비치 등을 통해 장애인이 모든 회의, 정보 활용 또는 관계형성과 유지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0회 총회(2015년 9월) 채택

작성자

안교성(장로회신학대학교)

이계윤(지체장애인선교협의회)

이상록(발달장애인선교협의회)

채은하(한일장신대)

최대열(발달장애인선교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장애인헌장

(제86회 총회 채택, 2001년)

I. 서 언

한국교회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와 그 실현을 위하여 달려왔다. 특별히 한국교회의 선교 초기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장애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와 병원 등 각종 시설을 세워 그들의 실질적인 재활을 추구하여 왔다. 이러한 한국교회의 장애인복지선교는 지금도 계승되지 못하고 오히려 올바른 정책방향조차 논의되지 못하는 가운데 전 근대적인 프로그램을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편협 되고 단편적인 신학적 배경으로 장애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시혜의 대상으로 보아 왔으며, 교회의 사명을 인간의 영혼 구원에만 뚴으로써 소외된 장애인의 삶을 외면하였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하루가 다르게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책이나 실천이 오히려 낙후되어 버렸다. 현실적으로 한국교회가 장애인복지선교에 걸림이 되고 있는 것은 물리적 환경이 장애인이 교회에 접근하기에 너무나 어렵고, 교회 내에서 장애인을 위한 전문화된 프로그램에 없으며,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의 개선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바른 성서적, 신학적 이해를 정립하고, 이를 기초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장애인복지선교의 정책과 방향을 선언하며, 그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II. 성서적·신학적 기초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다(창 1:27).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그 존재 자체로 존귀하며 고유하며 복된 삶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성서의 이러한 인간관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인간을 인종적, 계급적, 지역적, 성적인 차별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역사와 만물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섭리와 경륜에 따라 장애를 일으키실 수 있고(출 4:11), 또한 치유하시는 전능자이시다(호 6:1), 장애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으며 그의 선하신 역사를 위하여 장애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운데 있는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공화심을 따라 보호하고 돌보라고 명령하신다(레 19:14, 신 27:18).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인간의 모든 장애가 해결될 것을 약속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화로운 삶의 징표들이다(사 35:5~6).

예수그리스도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 막힌 장애를 무너뜨리시고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엡 2:14~18).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하나

님의 나라의 징표들로 나타내시고, 결국 사랑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나라에로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삶이며, 궁극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예표를 담고 있는 삶이다(마 11:4~5).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가장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사건들은 병들고 소외된 장애인들을 찾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치유하신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장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선언하심으로(요 9:3) 인간의 장애의 원인을 죄로 보는 종교 이데올로기로부터 해방시키고 오히려 그러한 종교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사회를 가리켜 “죄 있다”고 말씀하셨다(요 9:40).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장애해방선언은 장애인을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데올로기에서의 해방선언이며, 장애인을 단순한 공황과 구제의 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역사의 일군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을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 곧 죄를 허물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시킨 사건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막는 어떤 장벽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성령은 신자 개개인을 하나님의 교회되게 하시며, 또한 하나로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있는 신자 개인과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병들고 소외된 장애인들을 받아주고 찾아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초대교회공동체는 이러한 성령의 명령을 따라 장애인에 대한 교회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삶을 돌보기 위해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육체에 가시를 지니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갈 4:14~15)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수고하였다.

교회공동체는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하여야 한다. 주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주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또한 없다(갈3:28~29). 성령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라면(엡 4:1~8),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분리와 차별을 극복하고, 장애인을 교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받아들이며, 교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동역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장애인 복지선교의 방향

한국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실현을 위하여 통전적이고 포괄적인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헌장은 그러한 포괄적이고 통전적인 교회의 선교를 지칭하여 ‘장애인 복지선교’라고 명명한다. 이 장애인 복지선교는 다음과 같은 장애인 선교와 목회의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들을 제시한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이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완전한 평등으로의 통합이며, 장애인의 삶의 질 전반을 포함하는 것이다.

1. 모든 교회는 장애인 선교와 목회를 교회 본질적인 사명으로 알아 장애인 선교에 모든 교회가 참여하여야 한다,
2. 교회는 장애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며 교회의 인원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기회를 제공하고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
3. 교회는 장애인의 영혼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교육, 취업, 재활, 문화생활 등 생활전반의 문제에 대해 깊이 관여하여야 한다.
4. 교회는 장애인의 정상화(normalization)와 완전한 참여(Full Participation)와 완전한 평등

(Full Equalization)을 통하여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성서적, 신학적 기반을 이루어야 한다.

5. 교회는 장애인의 건전화를 위해서 교회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있어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교회는 장애인을 교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여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등 교회의 전 영역에 정당한 동역자로 삼아야 한다.

IV. 교회의 행동강령

교회는 한 믿음과 한 사랑과 한 소망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실현을 위하여, 교회의 사명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강령을 지켜야 한다.

1. 접근권

- 1) 교회는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생활을 위하여, 무리적, 장벽과 정보와 의사소통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교회는 자체장애인이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교회는 장애인이 자유로이 교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갖추고, 정보와 교류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2) 교회는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생활을 위하여 부정적인 인식의 장벽을 제거한다. 대부분의 교회가 장애인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거리감을 두고 있다. 교회는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실현해야 한다.
- 3) 교회는 장애인의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교회생활을 위하여 영적 장벽을 제거한다. 대부분의 일면적인 교회는 인간의 장애를 그 사람의 죄의 결과로 직, 간접적으로 연관시켜 장애를 믿음이나 인격의 결함으로 평가하여 정죄하고 있다. 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바른 성서적, 신학적인 이해를 통하여 장애를 가진 교인을 교회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역해야 한다.

2. 예배

- 1) 교회는 장애인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데 필요한 시설과 도움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애인이 예배드리기에 불편한 점이 많다. 지체장애인에게 있어서 물리적 환경이 장벽이라면, 청각장애인에게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장벽이며, 시각장애인에게는 각종 유인물이 장벽이며, 정신지체장애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장벽이 되어 예배자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교회는 장애인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2) 교회는 장애인을 평등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예배의 순서에 참여시킨다. 교회는 불필요한 보조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장애인이 예배에 참여하여 헌신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교회는 예배에 함께 또한 성례전에서도 장애인을 평등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은혜

에 참여케 하여야 한다. 교회는 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없이 주의 은혜에 참여하는 성례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 교역자가 성례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교육

- 1) 교회는 장애인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장애인의 신앙교육을 위한 교재, 시설, 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교회는 장애인이 바른 신앙을 배우고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며 교회의 일꾼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하여야 한다.
- 2)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장애인이 교회를 낯설어하며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장애인 또한 장애인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잘 모른다.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하여 통합교육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3)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신앙교육을 담당할 전문가를 육성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교육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개발,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4. 친교

- 1) 교회는 장애인의 삶의 자리를 갇힌 공간에서 열린 사회로 개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부분의 장애인은 활동에 극히 제한을 받고 있으며, 사회와 접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다양한 친교의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2) 교회는 장애교인과 비장애 교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친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여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 3) 교회는 친교에서 장애인을 독립된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교회의 친교에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봉사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이 친교를 통해서 인격적인 나눔이 되어져야 한다.

5. 선교

- 1) 교회는 장애인 선교를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으로 인정하고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장애인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필수사명이다. 교회는 그 지역의 장애인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2) 교회의 장애인선교는 장애인들의 삶 전반을 포함하는 복지선교여야 한다. 교회의 장애인선교는 장애인들의 삶 전반을 포함하여야 한다.
- 3) 교회는 모든 선교 영역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교인들이 서로를 동등한 선교 파트너로 인정하여 하나님이 여러 모양의 사람에게 독특하게 부여하신 달란트를 효과적으로 상용하여 선교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6. 봉사

- 1) 교회는 장애인을 돌보며 위하여 봉사한다. 교회의 사회봉사가 구호나 단순한 물질적 후원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며 현실적으로 되어져야 한다. 교회는 적어도 그 지역사회의 장애인들을 섬기며 책임져야 한다.

- 2) 교회는 장애교인을 비장애인과 평등한 봉사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동역한다. 장애인 또한 그들의 받은바 은혜를 나누며 다른 장애인을 위하여 봉사하고 싶어한다. 교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든 영역에서의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교회는 사회적인 삶 전반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피해를 받고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회는 장애인들의 인권피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모든 차원에서 장애인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의 세례 지침(개정)

(제107회 2023년 중회 교육훈련처 세례문답집 개정)

1. 발달장애인의 세례

가. 발달장애인의 정의

발달장애인(the Developmentally Disabled)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적 장애(Intellectual disability)인은 ‘지능지수 70 이하의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이며, 자폐성 장애(the Autism Spectrum Disorder)인은 ‘ICD(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 기준에 따라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지적인 장애와 아울러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진다.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발달장애인은 ① 언어표현(음성언어)이 가능한 사람 ② 신체적 표현(행동언어)이 가능한 사람(그림 지적 기능자 포함) ③ 모든 표현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 발달장애인의 세례

발달장애인 중에는 음성언어 혹은 행동언어로 자신의 고백이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장애인이 있는 반면, 어떤 언어로도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어려운 장애인도 있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수세자에게 일정기간 적절한 교육과정을 거쳐 세례가 가능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중개인(돌보는 사람 혹은 가족)의 믿음과 돌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와 더불어 교회 공동체의 믿음과 돌봄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세례가 가능하다. 교회는 피부색깔, 언어, 성별, 그리고 장애와 비장애를 기준으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인 포용공동체(Inclusive Community)이다. 세례는 수세자를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이다. 교회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 신앙고백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과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어야 한다. 더불어 교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를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을 갖는다.

다. 발달장애인 세례의 근거

장로교 헌법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고백을 요구하는 절차는 발달장애인이 세례를 받는 일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딤후 2:4, 6) 이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도록 초청하셨다. 특히 공관복음서는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힘으로 구원으로

의 부름에 응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중개인의 믿음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제시한다 (마 9:2-8, 17:14-18, 15:2-28, 8:5-13, 9:18-26, 막 7:31-37, 8:22-26, 눅 9:37-43, 요 4:43-54).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는 중개인의 믿음이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장애인을 돌보는, 지인 혹은 가족의 믿음에 대한 인정이요, 이와 더불어 신앙 공동체의 믿음과 돌봄에 대한 인정이다. 우리는 이 중개인에 대한 인정을 통해서 세례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중증 장애인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방식을 따라 중개인의 믿음과 고백에 근거하여, 예배 출석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성경적으로 마땅한 일이다.

2. 발달장애인 세례 예식과 문답교육 일반

가. 장애인 세례의 교육 내용과 문답

- 1) 언어표현 혹은 신체표현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은 그의 지적능력과 학습능력에 적합한 방법으로 세례교육을 한다. 장애인에게는 개별화된 교육(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 IEP)을 실시하되 그에게 맞는 교재(그림, 활동사진, 인형극 등)를 사용하여 세례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문답을 통해서 세례수여자격을 검증한다.
- 2)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아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않는 장애인의 세례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는 중개인 혹은 공동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세례를 실시한다.

나. 중개인(仲介人, Mediator)의 범위

- 1) 중개인의 범위는 일차적으로 장애인의 삼촌 이내에 해당하는 가족으로 정한다. 이들은 장애인의 가장 직접적인 보호자요 법적 대리인이다. 이들의 믿음을 근거로 하여 일정한 교육과정을 실시한 후에 장애인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다.
- 2)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장애인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는 중개인의 범위는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에 동의하는 회중으로 한다. 즉 교회가 장애인의 신앙 성장에 교회 공동체가 함께할 것을 서약함으로써 친히 중개인의 역할을 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이다.

3. 반응 혹은 고백의 범위

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의 반응 혹은 고백은 그에게 실시한 세례교육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자발적인 시인과 동의에 근거한다.

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반응 혹은 고백은 세 가지로 구분해서 시행할 수 있다.

- 1) 첫째, 장애를 가진 유아(0세~6세)일 경우에는 유아세례의 절차를 따라 시행한다.
- 2) 둘째, 유아세례를 받은 장애인이 헌법이 정한 일정한 연령(12세)에 도달한 경우에, 중보자의 믿음에 근거하여 입교절차를 시행한다. 입교예식은 장애인의 법적 대리인 혹은 교회공동체에 속한 회중이 장애인을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을 고백함으로써

시행된다.

- 3) 셋째, 장애를 가진 아동(7세~12세)이나 성인의 경우, 헌법이 정한 일정한 연령이 되어서 교회예배를 참석하고, 관계 부서에서 이를 근거로 하여 세례를 주기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애인에게 세례를 베풀되 장애인의 법적 대리인 혹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회중이 그를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을 고백함으로써 시행할 수 있다.

4. 발달장애인의 세례교육, 문답 그리고 예식

가. 의사소통이 가능한 발달장애인

1) 세례교육

- 가) 장애인의 경우 그의 인지능력이나 언어표현능력에 알맞은 세례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개별적이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정기간 동안 집중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나) 기간은 세례문답 8주전에 시작하여 주 1회씩 8회기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교육할 수 있다. (1)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하여 (2)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3) 성령님의 돌보심에 대하여 (4)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하여 (5)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6) 성경에 대하여 (7) 가정과 사회에 대하여 (8) 세례와 성찬에 대하여
- 다) 각 내용에 대한 시청각자료를 준비하여 실시하되 가장 중요한 내용을 간추려 단순화해야 한다. 이해능력을 고려하여 알아듣기 쉬운 말을 사용하고 이해유무를 확인한다.
- 라) 문답은 언어표현이 가능한 경우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고, 언어표현이 어렵고 신체표현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림을 사용하여 손가락으로 짚는다거나 그 외의 비언어적표현을 하도록 한다.

2) 문답

가) 언어표현이 가능한 장애인의 문답

- ① ____ 씨(여러분)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까?
- ② ____ 씨(여러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 ③ ____ 씨(여러분)는 성령님이 나를 지금 지켜주심을 믿습니까?
- ④ ____ 씨(여러분)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까?
- ⑤ ____ 씨(여러분)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 ⑥ ____ 씨(여러분)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 ⑦ ____ 씨(여러분)는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겠습니까?
- ⑧ ____ 씨(여러분)는 세례받고 새사람이 될 것을 약속합니까?

나) 신체표현이 가능한 장애인의 문답

- ① 누가 세상을 만들었나요? 짚어보세요. (“하나님”과 “공사하는 사람”의 그림을 제시한다)
- ②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동굴 안에 누워있는 예수님”과 “동굴 밖에 살아나 계신 예수님” 그림을 제시한다)
- ③ 하나님이 나하고 멀리 있나요? 가까이 있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그림을 제시한다)
- ④ 더러운 내가 누구 때문에 깨끗해졌나요? (“예수님”과 “청소부” 그림을 제시한다)

- 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어디인가요? (“교회”와 “놀이터” 그림을 제시한다)
- ⑥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에 적혀 있나요?(“성경”과 “만화책” 그림을 제시한다)
- ⑦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싸우는 모습”과 “사이좋은 친구” 그림을 제시한다)
- ⑧ 나는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 그림을 제시한다)

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의 문답

- ① ____씨(여러분은)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여러분은 믿습니까?
- ② ____씨(여러분은)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성경에 말한 바와 같이 당신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분이신 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 ③ ____씨(여러분은)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평생 함께하기로 여러분은 서약합니까?
- ④ ____씨(여러분은)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여러분은 서약합니까?

이상과 같은 서약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라는 대답을 받고,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베푼다 : “(이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선언한다. 그들이 신앙과 생활에 충실할 것을 위한 간단한 권면을 한 후에 축복기도로 이 예전을 마친다.

나. 지적능력이 현저히 낮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세례교육, 문답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세례는 다음과 같은 회중에 대한 교육과 문답을 통해 시행한다.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므로 공중예배에서 회중의 참여 가운데서 베풀어져야 한다. 이 때 세례의 의미와 함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이 때 세례자의 명단은 당회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고, 세례교인 명부에도 기록해야 한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단이 인정하는 타교단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에게는 다시 베풀지 아니한다.

1) 장애유아세례

장애유아세례는 그들이 자기의 입으로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증거 하는 표이다. 이 세례는 부모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이 세례교인일 때 베풀 수 있다. 그 아이를 믿음 안에 양육하여 장성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생활을 하도록 책임질 것을 권면하고 다음과 같은 서약을 한다.

가) 여러분은 어린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야 한다는 것을 믿습니까?

- 나)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력하는 것과 같이 이 어린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 다) 여러분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리고 교회의 회중에게도 합당한 책임 이행에 관한 약속을 하고 동시에 목사가 간단히 기도를 드린 후에 다음 같이 말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어서 세례받은 어린이와 그 부모, 그리고 이 성례전에 함께 참여한 회중을 위해서 기도를 드린 후에 이 예전을 마친다.

2) 장애인 입교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이 장성해서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이다. 이 입교예식을 통하여 교회는 그에게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다. 목사는 장애인의 중개인 혹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회중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고백하도록 하며 회중 앞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 세례교인 됨을 공포해야 한다.

3) 아동 및 성인장애인세례

아동 및 성인장애인세례는 유아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헌법이 정한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고백하여 교인이 되고자 할 때 세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지적 능력이 현저하게 낮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이 세례를 받기 전에, 당회는 일정 기간의 교회 생활을 근거로 하여 장애인의 법적 대리인 혹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회중들로 하여금 장애인을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기도와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을 고백하도록 한 후,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공중예배에서 세례를 받도록 하고 교인 명부에 기록한다.

다. 지적능력이 현저히 낮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세례예식

세례의 예식은 목사가 회중에게 장애인의 세례의 의미를 선포한 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서약을 해야 한다.

“공식적으로 신앙고백을 하려고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은 다음의 물음에 진지하게 대답하여 하나님과 그의 교회로 더불어 엄숙한 언약을 맺어야 합니다.”

- 1) ____ 씨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의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여러분은 믿습니까?
- 2) ____ 씨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도록 돕기로 여러분은 서약합니까?

- 3) _____씨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기로 여러분은 서약합니까?
- 4) _____씨가 교회의 관할과 가르침에 복종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여러분은 서약합니까?

이상과 같은 서약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라는 대답을 받고,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베푼다 : “(이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 후에 그들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을 선언한다. 그들이 신앙과 생활에 충실할 것을 위한 간단한 권면을 한 후에 축복기도로 이 예전을 마친다.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교회활동 지침

1. 접근권(이동권)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 가. 건축물과 관련 있는 편의시설 - 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등입니다. 유도 및 안내설비에는 점자촉지도, 안내표지판 등이 있으며, 경보 및 피난설비에는 경보등, 대피소 등
- 나. 정보의 접근 및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과 관련 있는 편의시설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신지체인과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점자블록, 계단 손잡이의 점자표지판, 점자촉지도, 음성안내시스템, FM수신기, 전광문자안내판 등
-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라. 교통시설, 교통수단 및 이동과 관련 있는 편의시설 - 횡단보도, 인도, 육교, 지하보도, 음향신호기, 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장착 차량, 전동차 내의 휠체어 사용자용 좌석, 전광문자 안내판, 음성안내시스템 등

2. 예배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 가. 장애인주일예배 성수
- 나. 예배참여 보장
- 다. 예배안내 - 담당인력을 배치, 교회는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후보 및 홍보물 제공, 수화통역 및 문자통역 등을 제공
- 라. 설교시 장애인관련 용어 선택 - 절뚝발이, 앓은뱅이, 병어리, 불구자, 귀머거리, 병신, 곱사등이, 난쟁이 등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사용금지

3. 전도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 가. 교회는 장애인이 복음에 접근하거나 복음을 전달받는 일에 있어서 차별금지-수화통역, 전도지, 휴대폰과 인터넷 등의 동영상 자료, 점역전도지, 전도용 음성낭독 테이프 자료, 쉬운 말 자료나 시청각 자료 등
- 나. 교회는 전도초청행사를 할 경우에 장애인을 위하여 이동과 접근과 좌석과 환경을 배려하고, 장애인 관련자나 보조견과 보조기구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원활한 행사참여를 위하여 적절한 자료와 봉사자 등을 제공
- 다. 교회는 장애인에게 전도할 경우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이나 예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적인 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적인 노출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인격과 자기결정권 존중

4. 교육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 가. 교회는 성서와 교리와 생활을 교육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교육 프로그램, 수련회, 사경회, 세미나, 성경공부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과 적절한 자료와 도움 제공
- 나. 교회는 장애인을 교육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통합의 이념 가운데 장애인 개개인에게 적합한 방식과 수준에서 개별적인 교육 제공
- 다. 교회는 보다 적절한 장애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부와 장애인봉사부서 운영
- 라. 교회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교회로서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 캠페인을 함.

5. 친교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 가. 교회 안의 성도간의 교제
 - 찬양과 기도회, 그리고 성도간의 교제 시간에 장애 즉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
 - 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이나 활동에 있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됨.
 - 성도간의 교제에 있어서 장애인의 외모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함께하지 않을 것
 - 성도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에 대한 정보제공이 장애인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 일반인들 중심으로 하여 자주 일어나거나 앉는 일을 자주하여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는 것도 차별
- 나. 교회 외부에서의 성도간의 교제
 - 수련회, 기도회, 심방, 기도원 방문 등을 통한 교회 바깥의 교제에 있어서 장애라는 이유로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
 - 장애인이 자신이 가진 장애에 의하여 표현할 수 없거나 표현하기 힘든 것을 요구하여 수 치심이나 괴롭힘을 겪을 때 차별에 해당됨.
 - 교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에 있어서 교통수단을 통한 이동에 있어서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참여를 배제하는 것도 차별

6. 봉사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 가. 교회 안에서의 봉사영역
 -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대, 식당봉사, 행정봉사 등에 있어서 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이 배제되어서는 안됨.
 - 직제와 조직에 있어서 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임명이나 선출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
 - 봉사영역에 있어서 장애인이 배제되거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은 차별
- 나. 교회 외부에서의 봉사영역
 - 교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선교활동, 구역활동 등을 실천함에 있어서 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차별

- 성도들의 가정을 심방하거나 병원 등 시설에 있는 교우들을 섬기는 일에 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저지하는 것은 차별
- 교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봉사활동을 기획할 때 일반인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장애인이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차별

7. 청지기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 가. 예산배정 - 교회는 목회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차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예산을 책정
- 나. 장애인직원 채용 - 교회는 직원의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됨.
 - 교회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
- 다. 정보누설 금지 - 교회는 장애를 겪고 있는 교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됨.
- 라. 시설물 접근 이용에서의 차별금지
 - 교회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됨.
 - 교회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안됨.

장애인 관련 성경구절

출애굽기 4: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레위기 19:14

너는 귀머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 27:18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열왕기하 5:13~14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열왕기하 7:3~4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사야 29:18

그 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이사야 35:5~6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떨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 42:16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공명이 되게 하며 굵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일을 행하여 그들
 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스가랴 12:8

그날에 여호와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날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마태복음 11:4~5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
 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마가복음 2:4~5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
 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3: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요한복음 5:6~9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요한복음 9: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이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13~15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
 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
 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고린도전서 12:22~25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시라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2:7~9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총회사회봉사부 장애인관련 산하단체 소개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회장 안후락 목사)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는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에 각 장애영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인 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 시각장애인선교회, 지체장애인선교연합회, 총회농아인선교회 등의 단체들이 연합하여 구성한 협의기구입니다. 2004년 구성된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는 장애인선교 및 복지관련 단체들의 활동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 및 선교 관련 연합사업을 협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 (회장 최대열 목사)

지적장애인선교연합회는 본 교단에 속한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 중증장애인 등) 예배부서들의 연합체로서 지적장애인선교의 확대와 교회 내 장애인부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교류 및 공동협력하고, 범교회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교회가 장애인들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는 한편, 올바른 프로그램 개발과 교단 차원의 정책 수립에 참여하여 적극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 김기화 목사)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와 복지를 위해 정책개발 및 실천을 위한 교단 내 시각장애인 교회, 기관, 선교회 등 사역자로 조직된 단체로 2004년 총회 사회봉사부 산하단체로 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선교연합회 (회장 최훈창 목사)

본 교단 소속 지체장애인선교단체로 지체장애인의 선교,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지체장애인 선교정책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복지증진, 교역자 재정지원 등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교회 수련회, 체육대회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회농아인선교회 (회장 정종규 목사)

총회농아인선교회는 전국 농아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1994년 9월에 창립되어 현재 농아인 교회 26곳과 일반교회 농아부 23곳이 있으며 농아교회 개척 및 지원, 국내외 선교 및 문서선교, 농아교회 교역자 육성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Share Our Love, Share Our Vision

사회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우리 실로암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기관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라는 미션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의 전인적 복지를 위해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15개 시설, 약 365개 사업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효명장학사업

1978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맹인선교부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해 시작된 장학사업을 실로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2010년 ‘효명장학사업’으로 다시 시작하여 매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장애아동·청소년 입학등록금지원과 점자교과서 보급으로도 확대되어 시각장애인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대학생 1,361명에게 약 20억 9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고,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지도자 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원문의
법인사무국 02-880-0504~0505

후원계좌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하나은행 577-810008-22104

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관련 산하단체 주소록

지체장애인선교회

no	성명	직분	교회명	주소	전화번호
1	김광열	목사	한마음벨렐	남원시 시청북1길 8 (도통동 510-3)	063-633-0175
2	김용구	목사	한남대학교회	대덕구 한남로 70 정성균선교관 3층	042-629-7217
3	김종근	목사	에벤에셀	서울 강서구 초원로 8길 4	02-2662-2181
4	김찬중	목사	엘림	대구광역시 가창면 행정1리 967번지	053-767-1330
5	김호민	목사			
6	민만기	목사	광은	경상북도 안동시 합전1길 44	054-859-2251
7	박서근	목사	미문	부산시 사하구 다대로 135번길 34-10	051-248-7189
8	박영식	목사	광주 임마누엘	광주시 남구 봉선중앙로 131번길 10	062-673-4003
9	배용호	목사	편의시설연대		
10	변창식	목사	복지옴브즈만	대구시 중구 달구벌대로 2035, 동산맨션	
11	서광석	목사	(소망의 집)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죽암도원로 198-41	043-268-2459
12	송정열	목사	울산물대동산	울산광역시 남구 달삼로84번길 28-1	052-273-7991
13	송종운	목사	부활의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87(풍산리328-1)	061-336-6992
14	신경희	목사	동지	대구 달서구 계대동문로 92(이곡동 1196)	053-591-4914
15	신팔수	목사	예동	경북 달성군 화원읍 명곡로 11	
16	유원철	목사	한국밀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217-23 일산더샵그리비스타 102동 1201호	031-911-8701
17	윤경배	목사	덕치	전북 임실군 덕치면 회문리 583	063-643-5036
18	이계윤	목사	동빙고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길 42	02-792-2707

19	이동기	목사			
20	이유형	목사	총의	달서구 도원로 5, 4층(도원동 1434-1)	053-635-3131
21	이장선	목사	사랑하는교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49, 송실프라자 408호	031-417-8152
22	임상동	목사	성서소망	달서구 달구벌대로 1222번지 로얄빌딩 5층	053-582-1946
23	차재우	목사	양주여명교회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중앙로 223번길 30	031 843 3247
24	최대열	목사	명성		02-440-9000
25	최효용	목사	새문안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79 (신문로 1가)	02-732-1009
26	최훈창	목사	전주함께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완산구 만내2길 14	063-227-7982
27	하상범	목사			

시각장애인선교회

no	성명	직분	교회명	주소	전화번호
1	조동교	목사	가나안교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1동 649-53	
2	오정일	목사	광명교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351번길 26	
3	조재성	목사	대덕교회 실로암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34	
4	도중순	목사	대명엘림교회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57길 16, 2층	
5	정홍규	목사	동산제일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율하동로 23길 38	
6	오경노	목사	동안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21길 15, 청산맨션 상가 2층 9호	
7	임 상	목사	미션 바디메오 선교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80, 노블리안 2 오피스텔 6014호	
8	안희중	목사	산돌선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07 104동 218호	
9	진영채	목사	산소망선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7길 13	02-455-3049
10	박종현	목사	삼광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131	051-341-2110

11	서민택	목사	삼성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봉로 113, B1층 101호	
12	하남수	목사	실로암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만리산로36번길 22	051-646-7771
13	이희숙	목사	실로암샘물교회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2길 27, 조은빌딩 2층	
14	김선태	목사	실로암안과병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1 실로암안과병원	02-2650-0700
15	홍길표	목사	생명샘교회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	042-286-2333, fax042-286-2333
16	박병민	목사	새터공동체교회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군북로1403-31	041-754-1489, fax041-754-1490
17	이정훈	목사	안산제일교회 실로암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031-485-0955
18	장찬호	목사	애능중앙교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10길 5	0507-1446-919
19	김영길A	목사	예함장애인선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07	
20	장삼식	목사	영성의교회	대구광역시 동구 메디밸리로 9, GS빌딩 305호	
21	김영길B 이경남	목사	우리사랑교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49번지 2층	
22	안효숙	목사	우리사랑교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돌미로 36, 벽진빌딩 4층	
23	윤형식	목사	좁은문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기능로 94, 2층	
24	김인철	목사	참빛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87번길 19, 2층	
25	김기화	목사	하늘빛교회	대구광역시 달서구 장기로 195, 4층	053-557-0170
26	권호섭	목사	한국맹인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4길 23	02-752-3956
27	-	목사	한빛교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77가길 92 한빛교회	02-981-1556
28	김호경	목사	함께하는교회	강원도 춘천시 사우로 57-1	
29	정민교 이한찬	목사 전도사	흰여울교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중리북로 40, 천복빌딩 2층	

30	이정현	선교사	선교사		
31	김광한	목사	은퇴		
	박석권	목사			
	박성아	목사			
	서윤갑	목사			
	신동승	목사			

총회농아인선교회

no	성명/교직	설립일	교회명	주소	전화번호
1	이대설 전도사	2007-11-00	거룩한빛광성교회농인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udream153@naver.com
2	권경원 목사	1987-03-15	고창중앙교회농인부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대로 1792	we-50000@hanmail.net
3	곽호범 목사	2004-01-18	고촌농아인교회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장차로 20 고촌중앙교회(농아인선교)	kwak9117@hanmail.net
4	전희숙 목사 김대식 목사	1986-06-19	공주농아인교회	충청남도 공주시 정자방3길 10	전) jhsug35@nate.com
5	최정숙 목사	2000-12-01	과천교회에바다부	경기도 과천시 관악산길 103	deaflove75@naver.com
6	김한나 목사	2007-01-07	구미농아인교회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중앙로12길 20-1	054)476-9106, hoho0124@hanmail.net
7	강상희 목사	1980-09-30	남가주농인교회	1815 West Ave, Fullerton, CA 92833 714-732-2275	Kang3927@gmail.com
8	노승문 목사	2007-05-06	남해농아인교회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67 (2층)	qwert4640@hanmail.net
9		1981-04-26	대구농아인교회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 18-16	
10	김지현 목사 황용학 목사	1979-04-08	대전농인교회	대전시 대덕구 대화로 29	김) nwsjkh21@hanmail.net 황)hak2no1@gmail.com
11	임규현 목사	2022-10-23	더사랑교회농인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213(더사랑교회 비전센터내 농인부 2-4층) http://thesarangch.org/	010-4212-5195 153gv@naver.com

12	박교성 목사	2011-11-27	동경농아교회	(169-0074)東京都新宿区北新宿3-10-5, 東京デフ教会(中央栄光教会内)	sukaria72@hanmail.net
13	손원재 목사	2002-02-25	명성교회농아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452 www.msdeaf.com	02)440-9155 wjson14@nate.com
14	천형기 목사	1992-02-09	밀양농아인교회	경남 밀양시 단장면 상봉1길 70	cheon973@hanmail.net
15		1994-06-26	봉화농아인교회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로 53. 101호	
16	남원석 목사	2004-07-12	부여농아인교회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39-7(부여교회 내)	nwskjh@hanmail.net
17	김상섭 목사	1991-12-10	부천동광농인교회	경기도 부천시 경인옛로 130	agape8183@nate.com
18	박찬양 목사	2001-03-04	상주시민교회농인부	경북 상주시 왕산로 311	yang9940@naver.com
19	이 일 목사 우용창 목사	2002-07-14	소망농인교회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115	이) deaflee21@hanmail.net 우)wyc001@hanmail.net
20	최만석 목사 종은숙 목사	2004-12-06	속초더함교회	강원도 속초시 수복로 109-1 033)633-0447	최) paull76@hanmail.net 종)j-servant@hanmail.net
21	오선희 목사	2007-09-15	수어로하나되는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680번길1 6층	062)371-6141 sunny5@hanmail.net
22	황진호 목사	1983-10-30	순천농인교회	전라남도 순천시 매곡새길 21(매곡동 67-1)	810h@hanmail.net
23	이준형 목사	2000-01-02	안산제일교회농인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1	junehr@hanmail.net
24	최연희 전도사	1999-09-12	안양제일교회농인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140번길 11-10	031)449-1195 ruawtkfkfd@naver.com
25	강신향 전도사	1981-04-03	영주제일교회농아부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37	054)635-1601 yk91252001@yahoo.co.kr
26	성낙경 목사	1999-04-10	예당농인교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로164번길5 예산장로교회內	041)545-6242 sungnk69@hanmail.net
27	권만호 목사	2006-07-16	예람농아교회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75번길 11(수안동4-1) 3층	051)554-3738 nno0220@hanmail.net
28	이수영 목사	1985-03-17	의정부농인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24번길 22-12(가능동)	su-1737@hanmail.net

29	이영우 목사	2014-08-24	작은농인교회	서울시 종로구 종로69. 서울YMCA 420호 (청음보청기)	agape829@hanmail.net
30	이상록 목사	2004-01-04	창동염광교회농인마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0길 16	sangrok0729@hanmail.net
31	최삼철 목사	1976-11-07	창원농인교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12 cscdeaf@hanmail.net	
32	박금순 목사	1981-05-24	천안농인교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4길 9 천안서부교회내	141051@hanmail.net
33	안성국 목사	1995-01-21	청주농아인교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59. 3층(사창동)	asg8282@hanmail.net
34	정종규 목사	2017-01-01	치유하는농인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5길 37 https://healingdeafchurch.com/	jeongyu125@gmail.com
35	강승호 목사	2016-06-12	필리핀농인교회	30 Judge Puno Brgy. Holy Spirit, Quezon City	door-kang@hanmail.net
36	김애식 목사	2022-04-16	하남농인교회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로 111-21 202호 https://hanamdeaf.or.kr/	aesik125@hanmail.net
37	정은주 전도사	2014-08-17	한빛교회	울산시 중구 태화로 209, 2층	s9918123@nate.com
38	이상원 목사	2013-07-14	한사랑농아인교회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262길 12. 2층	egn65@naver.com
39	안후락 목사	1991-12-22	한숲농아인교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298번길 3-1	hoo210@nate.com
40	조수현 목사	2005-08-28	홍성농아인교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42. 201호	oceansea@hanmail.net
41	신영애 전도사	1987-04-12	황금동교회농아부	경상북도 김천시 남산공원길 146	6784418@hanmail.net
42	이현도 전도사	2005-06-05	황지교회농아부	강원도 태백시 황지북 2길 6	taebaek125@naver.com
43	방성호 목사		무임	bsh6873@hanmail.net	
44	김진번 목사			deafcts@hanmail.net	
45	장병락 목사			jbl21@hanmail.net	
46	이용보 목사			deaf73@naver.com	
47	정순인 목사			soonin527@hanmail.net	
48	남기윤 목사			pooh660703@hanmail.net	
49	최호식 목사			deaf125@hanmail.net	

50	송상민 전도사			ssm7217@hanmail.net	
51	유용자 전도사		은퇴	youg9515@nate.com	youg9515@nate.com
52	이원홍 목사			lee3927@hanmail.net	lee3927@hanmail.net
53	신현웅 목사				
54	이종순 목사			ljs07120@hanmail.net	ljs07120@hanmail.net

예정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

(서울경기지역)

no	성명/교직	부서	교회명	주소	전화번호
1	문연상 목사	캠프힐	강화 큰나무 캠프힐	인천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428번길 70-11	032-937-3173
2	왕하늘 전도사	사랑청년2부	거룩한빛광성교회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031-918-9100
	손현철 전도사	사랑청년1부			
	우상길 목사	사랑청소년부			
	변영현 전도사	사랑어린이			
3	김상아 전도사	사랑부	고척교회		02-2686-5871
4	김수영 목사	사랑부	과천교회	과천시 관악산길 103	02-502-2357
5	육순일 목사	임마누엘부	꿈꾸는교회	관악구 청룡 4길 31	02-878-9498
6	임운진 목사	소망부	도림교회	영등포구 도영로 37	02-2181-6000
7	강범모 전도사	소망1부	동안교회	동대문구 회기로 25길 67	02-962-0727
	김현수 전도사	소망2부			
8	최대열 목사	사랑부	명성교회	강동구 구천면로 452	02-440-9000
	권오병 목사				
9	조영수 목사	밀알부	사랑누리교회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30번길 36. 신유프라자 7층	031-966-5591

10	양정호 목사	사랑부	서울교회	강남구 삼성로 51길 7	02-558-1106	
11	이선원 전도사	베데스다부	성민교회	서초구 효령로 110	02-597-1451	
12	김지혜 목사	소망부	소망교회	강남구 압구정로 36길 55	02-512-9191	
	오지웅 목사					
13	임승혁 목사	소망부	수유제일교회	종로구 대학로 3길 29 (연지동 135번지)	02-3672-0691	
14	이영현 목사	소망부	승리명성교회	노원구 상계로 12길 26-8	02-931-8195	
15	이정훈 목사	사랑사역위원회	안산제일교회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2길 11	031-485-0955	
	김의신 전도사	학생사랑부,소망부				
	황요한 목사	꿈꾸는사랑부온라인				
16	노연정 목사	사랑부	안양제일교회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40번길 11-10	031-449-1195	
17	장성식 목사	사랑부	염산교회	마포구 대흥로 24바길 21	02-717-9176	
18	전찬욱 목사	사랑부	영락교회	중구 수표로 33	02-2280-0317	
	홍준표 전도사	사랑2부				
19	박영준 전도사	장애인교회꿈쟁이	예향교회	경기도 양주시 고읍로 36-17	031-859-9191	
20	정연영 전도사	강동 사랑부	온누리교회	강동구 천호대로 157길 14 나비빌딩 11층	02-475-9686	
21	정기은 전도사	부천 사랑부		부천시 평천로 589	032-322-9686	
22	김태주 목사	서빙고 꿈사랑부		용산구 이촌로 347-11	02-793-9686	
	김종영 목사	서빙고 사랑부				02-3215-3232 목회행정실
	정요한 목사	서빙고 예수사랑부				02-3215-3268 간사
23	김병철 목사	양재 예수사랑부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02-573-9686	
	이은일 목사	양재 사랑부				
24	이승헌 목사	인천 사랑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84번길 24, 제너셈 7층	032-437-9686	

25	설윤성 전도사	사랑부	은진교회	은평구 갈현로 45길 7	02-353-7778
26	박우영 목사	사랑부	응암교회	은평구 은평로 16길 11	02-389-4651
27	김호경 목사	우리부	의선교회	고양시 덕양구 행신로 354번길 27-3	031-978-8241
28	최희경 전도사	경진부	일산동안교회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 108번길 72	031-904-2281
29	문정수 전도사	사랑나무	주님의교회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내	02-416-5181
30	황성재 목사		주신교회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9-10 아롬타워 7층 704호	070-7621-7568
31	배성훈 목사	장애인사역국총괄	주안장로교회	인천시 부평구 부흥로 213	032-429-7071
	김환식 목사	주안사랑부			
	최명진 목사	사랑1부			
	김병석 목사	사랑2부			
32	이상록 목사	도봉장애인복지관	창동염광교회	도봉구 도봉로 120길 16	02-908-9100
	김세라 전도사	장년사랑마을			
		어린이사랑마을			
	박찬주 목사	청년사랑마을2			
	박지아 전도사	청년사랑마을1			
	강예진 목사	청소년사랑마을			
	비전사랑마을				
33	이명숙 목사	사랑부	치유하는교회	강서구 강서로 15길 37	02-2603-6221
34	안병훈 전도사	소망부	태평제일교회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415	031-722-2553
35	권오성 목사	사랑부	평광교회	양천구 목동서로 13	02-2643-5805
36	황성진 목사	사랑1부, 사랑2부	평촌교회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90	031-421-0205
37	태원석 전도사	소망부	한소망교회	파주시 경의로 983	031-950-1440

예장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

(서울경기지역 외)

no	성명/교직	부서	교회명	주소	전화번호
38	이삼열 전도사	사랑부	강릉교회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333	033-652-9191
39	박현우 전도사	사랑부	(김해)장유대성교회	경상남도 김해시 능동로 67	055-723-2012
40	변현숙 목사	사랑부	대구남산교회	대구 중구 관덕정로 16	053-253-8490~3
41	김정희 목사	사랑부	대구신암교회	대구 동구 아양로 14길 17	053-955-7755
42	신선주 전도사	사랑부	대구하늘담은교회	대구 수성구 지범로 23길 11	053-784-0566
43	정금숙 목사	사랑부	대구한가죽교회	대구 동구 동호로2길 3. 1층	053-965-0192
44	류재룡 목사	임마누엘2,3부	(대전)대덕한빛교회	대전시 유성구 어은로 58번길 50	042-863-0724
	성일호 목사	임마누엘1부			
45	박성아 전도사	소망부	땅끝교회	부산 영도구 대교로 50	051-415-2241
46	홍창영 목사	사랑부	마산동부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길 40	055-296-1968
47	정명숙 목사	사랑1,2부	(부산)산성교회	부산시 남구 유엔로 137번길 12	051-627-7022
48	한희영 목사	사랑국	이리신광교회	전북 익산시 고봉로 60	063-850-4322
49	이향림 목사		제주곶자왈교회	제주시 연신로 158 (2층)	
50	홍정기 목사	사랑부	제주봉개교회	제주시 번영로 561-8	064-722-7188
51	김응순 목사	사랑부	제주영락교회	제주시 동광로23길 15	064-753-1232
52	최신형 전도사	나래부	천안중앙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중앙길 27	041-529-9191
53	김기환 목사	사랑부	(청주)상당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51	043-290-8533
54	김미리 전도사	소망부	(포항)기쁨의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054-270-1033
55	박건식 목사	하나부	포항제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172	054-727-8100
56	최소월 목사	사랑부	행복한숲교회	원주시 신림면 윗성남 1길 17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도농사회처 사회봉사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3길 29, 6층 603호(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Tel. 02-741-4358